

어둠을 밝히는 등불되어 다가오는 새시대를 찬란히 비춰라



사진 엄태규 기자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동국인의 땀과 꿈이 담겨있는 이름

동국대학교가 96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개교 9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8, 9면 교양교육강화



96년 학부제 시행이후 교양교육을 강화하고자 재편과 수정작업을 계속해 왔지만 계속되는 변화에도 교양교육은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해 본다.

6면 노동자 기념행사

11면 남녀 성의식 비교

개교 96주년 치사 구성원들의 화합으로 동국발전 이뤄내야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오늘 신록의 향기가 삼보의 언덕에 가득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날에, 본인은 동국대학교 개교 96주년을 맞이하는 기쁨을 모든 동국가족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교가 개교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운이 기울어져 가던 1906년의 일로서, 당시 우리 민족은 주변 강대국의 압박과 개화의 격랑속에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신교육의 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면서 민족자존을 위한 새로운 교육을 갈구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갖 박해를 받아오던 불교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세웠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될 경사였으며, 또 그런 연유에서 본교야말로 민족에 의한 민족의 대학임을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교 후 우리 동국대학교가 걸어온 길은 순탄하지않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역대 이사장과 재단임원, 총장과 교직원, 동문들과 학부형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힘을 합쳐 역경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의연하게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민족의 명문사학으로 발전시켜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건학정신을 민족 문화의 근간인 불교사상과 그 문화에서 구하고, 지혜와 지비의 교육적 이념을 존중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지나온 96년 동안



상구보제(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眾生)이라는 불교의 보살정신을 끊임없이 추구해 오면서 수많은 지성인을 배출하여 민족과 인류에게 크게 공헌해왔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어려운 도전을 이기고 주체적으로 창조하려는 이의 마음에 따라 움직여 왔다는 교훈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동국인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애교심으로 화합할 때만이 동국의 미래는 찬란하고 희망찬 빛으로 밝아올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동국인들이 송석구 총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열정의 불이 타오르는 뜨거운 사명감을 안고, 진정으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국의 위대한 전통과 자존을 승화시키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지기를 간곡히 기대해마지

오 녹 원
이사장 함창

개교 96주년 기념사 불신과 의혹에서 벗어나 대도약의 한길로

오늘 우리 동국대학교가 교육구국의 일념으로 육영의 뜻을 펼쳐 문을 연 이래 96주년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20세기의 벽 두 근대를 지향하는 등마리에 열강들의 침탈로 위기에 직면한 조국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동량재를 양성하리라는 불교계 선각자들의 건학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이 삼보의 언덕에서의 면학을 통해 도야한 학문과 인격으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수많은 동국인들을 배출한 자부심은 감히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계를 밝히는 지혜와 인간을 널리 구하고자 하는 자비와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구도의 발원들을 한결같이 세우고, 한 세기에 다 이르도록 쉬임없이 정진해 온 우리 동국의 역사는 역동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학이 직면한 과제는 바야흐로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변혁과 쇄신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성적인 안일과 정체의 길목에서 잠깐 주저하는 동안 주변의 경쟁자들은 이미 선두를 빼앗아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한시비해 구각을 스스로 벗어 던지고 새로운 대학의 위상을 세워 나갈 때 비로소 전통의 힘은 새롭게 미래비전으로 재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를 외면하고 답보만



한다면 동국의 내일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동국을 구성하는 제 주체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합심 협력하여 오로지 대학의 발전을 위해 일로매진해야 할 시점에 일방적인 불신과 편협의 시각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직시할 때,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의 동국은 결코 오늘의 구성원들만의 대학도 아니고, 더구나 구성원 중의 일인이 독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선배들이 이루어왔듯이 오늘을 경영하는 우리 모두는 내일의 동국인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동국이라는 긴 장강의 흐름은 역사의 자취가 되는 만큼, 오늘의 소임은 역사성에 의해 결정되어졌고, 또 역사적으로 평

가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일각의 편벽된 주장으로 인해 동국 대도약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소명을 통렬히 각성하고 허심탄회하게 화합 동참하는 아름다운 화음을 일구어야 하겠습니다.

서울·경주캠퍼스에 이어 일산에 제3캠퍼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먼저 의과대·한의과대 부속 불교병원의 준공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즈음에 이를 빌미로 불신과 의혹을 제기함은, 실로 우리 동국의 미래를 불모로 하여 대의명분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이라고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동국인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인내와 자재력을 발휘하여 대학 발전의 대 분수령에 기어코 동국호라는 이 위대한 열차를 끌어올려 대약진의 기적소리를 울릴 수 있도록 가슴을 열고 어깨를 함께 짊어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 속에 숨어 있는 독사와 같은 불신을 스스로 물리치고, 오로지 동국의 밝은 내일을 향해 진정 무소의 뿔처럼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마침내 동국의 어둠을 깨치고 찬연한 동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는 영광을 함께 누리시다.

송 석 구
총장 함창

소나기

나는 이럴 때 동대인임을 느낀다



△불상 앞에 빛나는 조명 볼 때
△전지현 났나고, 예쁘나고 물어볼 때
△동대응원가 부를 때
△밤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 불상 너머로 보이는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 '자아와 명상'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반아심경을 외울 때
△언젠가부터 등산을 잘 하게 되었을 때
△스스님과 같이 등교할 때
△크리스마스 때 다른 학교 트리보고
부러워하다 우리학교는 부처님 오신날에
연등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사자재가 내는 소음이 들릴 때

△도서관에 자리 없을 때
△누구보다 언덕 잘 올라갈 때
△학교 오다가 수업에 늦어도
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일 때
△동대입구역에서 내릴 때
△이런 걸 열심히 쓰는 날 볼 때
△다른 대학친구가 우리학교 밥이
맛있다고 할 때
△1층인 줄 알고 들어가서 3층이 나올 때
△족발만 보면 치가 떨릴 때
△군대있을 때보다
더 튼튼해진 다리를 볼 때
△TV에서 동국대라는 소리에
눈 돌아 갈 때
△언덕에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고 싶을 때
△스포츠뉴스에서 동대 운동부가 졌을 때,
안타까움을 느낀다
△ '여우와 송사탕' 볼 때
△이디서나 동국대란 이름을 들으면
뿌듯할 때
△커피값이 100원 일 때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을 볼 때
△동물원에서 코끼리 볼 때
△새벽 불경소리에 눈을 뜰 때
△ '달마와 놀자' 를 보면서 친근감을 느낄 때
△신문에서 총장님 사진볼 때
△옆에서 같이 수업받는 스님을 볼 때
△친구가 다니는 학교의 등록금과
내가 다니는 등록금을 비교할 때

무엇이 올바른 복지인가

며칠 전 경주캠프 학생회관내 은행에 현금서비스 이용 차 들른 적이 있었다. 이용 후 은행 앞에 어버이날을 맞이해 선물로 팔려나갈 옥매트 등의 상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의 씬스미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고가의 상품들이었으며, 물건이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학내에서 우체국과 학생회가 경합을 벌이듯이 상품판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학생회관 주위가 난전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판매자측의 취지는 시중가보다 싼 물건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복지라는 발상에서 나온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캠퍼스 내에서 난전 같은 모습도 복잡스러웠는데 학교라는 공간을 망각하고 학생들이 싸게만 구입하면 복지가 된다는 판매자들의 목인하고 있는 학교측 처사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학교측과 학생회는 복지다온 복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측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제재를 가하고, 학생회는 캠퍼스란 공간을 망각하지 말고 무엇이 올바른 복지 사업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
박성근 (법정대 국제관계3)

오늘의 소식

최 현 주 (인문대 사회체육1)

전국총별선수권대회 100m허들 우승자 "한국신기록과 학업의 꿈을 뛰어넘을 거예요"

매일같이 장애물을 통과하며 꿈을 향해 달리는 이가 있다. 지난주 치러진 제31회 전국총별육상선수권대회의 여자대학부 100m허들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주캠프 최현주(사체1) 양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단기간만에 우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라며 멋쩍게 웃음 짓는 최양. 이번 우승은 그가 허들로 전향한지 1개월만에 얻은 결과였기에 주위를 더욱 놀라게 했다.

실업팀에서 세단뛰기 선수로 활약하다 남달보다 3년 늦게 대학생이 된 최양의 입학사연은 남다르다. 여러 대학의 스카우트 제의를 마다하고 육상부도 없는 본교에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것. "친구를 통해 알게된 하성교수님께 전문적인 지도를 받고 싶었어요"라며 입학동기를 밝히는 그녀에게 스승에 대한 감

"함께 훈련하는 동료 없이 홀로 훈련하는 것이 힘들어요"라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최양은 교수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힘든 상황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전 세계 대학생 스포츠 축제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출전과 입상을 목표로 밤낮으로 허들을 넘겠다는 최현주 양.

거침없이 허들을 뛰어넘는 것 못지않은 기록수립으로 머지않아 한국기록을 갱신해 정상에 서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신정환 기자
sjh10th@mail.dongguk.ac.kr

동악광장

목격길

축하합니다

△경영대 B반 5월 10일 김성민과 최진훈의 생일을 축하! -막강 KOC
△김여의주 시험 잘본 것 축하! -최장 웅
△소휴심 교생실습 무사히 마친 것 축하! -이뿐이
△귀엽동이 영훈이 오빠(전기98) 생일을 축하해요!
△통계98 권혜린 퇴원 축하! 축하!
-통계98 권정희
△성희야~ 생일 축하해요.^^ -37기
△태성야! 480일 축하한다. -best friend
△유진야, 5월 18일 생일 축하해.
△이영미(99) 4월 28일 생일 축하합니다.
△그대의 제대와 우리의 1000일을 축하하며... -sugar
△5월 12일 문주영 씨 생일 축하해요. -경
△상욱야!(교선부장님) Happy Birthday 2 U. -제18대 회계학과 학생회

수고하셨습니다

△동블어려분 불교도 주간동안 수고많으셨구요. 마무리 열심히 합니다.
△사법대 교육학과 4학년 학우 여러분!

온방길

축하합니다

△5월12일 주영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WG
△세영이 오빠! 휴가 나온거 축하해~ 다음주에 꼭 만나!! -SJ
△5월12일 현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해경·수연·예원·은영·호정·소현
△5월 28일 혜경 생일 축하추카!
△액션맨! 머리 뽀글이 파마 귀여워~ 첫 파마 축하!
△플라이! 처기! 뽀글이! 첫 율급단 거 축하한다.
△은지야, 너한테 항상 고맙다! 남자친구 생일 것도 축하추카!!
△형진야, 퇴원한 거 많이 축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문과 소속 친구들아~ 시험 잘 봤니? 여하튼 고생했다.
△매점 아줌마! 핫도그에 케첩 많이 뿌려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김동 군! 수업시간 프린트를 복사하라. 학생들에게 나눠주라 수고가 많아. 남은 돈은 비빔밥~ 알지?

금주의 식단

| 서울캠 | | | | | |
|-------------|------------------------------------------------------------|------------------------------------------------------------|-----------------------------------------------------------|-----------------------------------------------------------|-------------------------------------------------------------|
| | 월(5/6) | 화(5/7) | 수(5/8) | 목(5/9) | 금(5/10) |
| 동국관 | 돈육김치찌개 (1300) 닭갈비볶음밥 (1500) 제육깡통볶음 (1500) | 잔 | 개 | 사골우거지탕 (1500) 오징어볶음 (1500) 미트볼링수요일 (1500) | 만두육개장 (1500) 공중벽볶음 (1500) 참치비빔밥 (1300) |
| 상록원 | 햄스터찌개 (1500) 김치오징어볶고기 (1500) 미트볼링수 (1500) | 국 | 기 | 된장찌개백반 (1500) 맛소스볶음밥 (1500) 닭꼬치구이 (1500) | 육개장 (1500) 해물덮밥 (1500) 수삼영양밥 (1500) |
| 교직원 | 만두전골 (3000) 장어강정 (3500) | 갈비탕 (5000) | | 부대찌개 (3000) 골뱅이소면무침 (3200) | 꾸꾸미빔 (3200) 생이채비빔밥 (3000) |
| 경주캠 | | | | | |
| | 월(5/6) | 화(5/7) | 수(5/8) | 목(5/9) | 금(5/10) |
| 학생회관 | 따로국 (1300) 김치볶음덮밥 (1600) 낙지볶음덮밥 (1800) 육개장 (1800) | 순두부찌개 (1300) 참치이채비빔밥 (1500) 생선가스 (1800) 냉면 (1800) | 북어채우거지국 (1300) 햄류음밥 (1600) 생선가스 (1800) 냉면 (1800) | 들깨미역국 (1300) 자장덮밥 (1700) 해물볶음밥 (1800) 육개장 (1800) | 콩비지찌개 (1300) 제육오징어덮밥 (1600) 팔보채덮밥 (1800) 냉면 (1800) |

점거농성 한 달 입장차이 '여전'

학교 "점거 중 공식적 협상 불가" ... 총학 "모든 사항 공식적 논의"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의 총장실 점거농성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측과 한 차례 협의자리도 갖지 못한 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30일 불교종합병원과 관련한 논의자리를 마련했으나, 언론공개에 대한 의견차로 인해 한 시간만에 결렬됐다.

이 자리에서 학교측은 "점거 상황에서 공식적인 협상은 있을 수 없으며, 협의자리를 준비하기 위한 비공식적 교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불교종합병원 조기개원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한다"는 기본입

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학교는 지난달 29일 △등록금 인상 요인 △불교종합병원 건립 재원 출처 △향후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유인물을 학내에 배포해 병원건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총학생회의 총장실점거 해제를 요구했다.

이번 자료는 그동안 학교측이 총학생회에 제시한 것으로서 교수·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종합해 공개한 것이다.

배포된 유인물에 대해 총학생회는 "재원미확과 향후 집행내역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수익성 관련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번

주 내로 학교측의 자료를 반박하는 내용의 기관지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수회(회장=박종훈·윤리문화학)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건립 운영·학교당국의 재원조달 방법 등과 관련된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각 항목을 분석한 2차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송일호(경제학) 총무는 "학교가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병원 개원을 추진해 나간다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학원 총학생회(회장=김영주·사회학 석사과정)는 대

표 성명을 통해 "불교병원문제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기개원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교를 비롯한 16개 서울 지역 사립대학생회는 지난달 19일 불상 앞에서 '서울지역 사립대학 공동 교육부 고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학생들은 "등록금이 교육환경 외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마음으로 ... 본교 불교도 연합이 주관한 불교도 주간 행사가 지난달 29일부터 4일간 학내 곳곳에서 열려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불교대 학생회와 석림회 등이 △법륜스님 초청 강연회 △코리퀴즈 및 단주 만들기 △피아노 연주회 △미스 아소다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컵등보시'에 여학생들이 참여해 컵등을 만들고 있다.

SCI급논문 게재 신청 증가 연구지원비 증가 동기제공

SCI급 논문 게재 신청 결과 신청 논문이 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 SCI급 논문 신청수가 53편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140편에 달한다. 이는 올해부터 논문 1편당 연구지원비가 기존의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교수들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름 계절학기 수강신청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여름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오는 14일부터 3일간 교내 컴퓨터 자유실습실에서 진행된다.

개설 과목은 1학기 개설 교과목과 2학기 개설예정 교과목 중 강좌개설 기준 인원을 충족한 과목이다.

신청 자격은 이번 학기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열 돌 맞은 한총련 출범식 개최

서울산업대서 1만 5천여 학생 참여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김영주·전남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국 대학 1만5천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이번 출범식은 첫날 '우리 한총련 기적의 밤' 전야제로 막이 올랐다. 전야제는 출범식을 개최한 서울산업대를 비롯 각 지역에서 출범식을 모범적으로 준비한 학교의 사례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산업대 정문에서부터 거리 곳곳에서 진행된 박타치는 반미주의와 북미관계를 비롯해, 통일 대학 노동 안티조선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조형물 위주로 전시됐다.

둘째날 오전에는 김남식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을 비롯 각계 인사들의 다양한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뮤지컬 '아리랑' 등 각종 문화행사가 서울산업대 곳곳에서 열렸다.

이어 오후에는 주목을 끄는 '한국학생운동 20년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 전대협 1기 의장 이인영 씨 등 학생운동 출신 인사들과 현재 한총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 참석해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문제와 한국학생운동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격적인 10기 한총련 출범식은 정중성(광운대 총학생회장) 서총련 의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국통일위원회=전승원 경성대 총학생회장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양대석 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취임한데 이어 마지

막으로 전남대 김형주 총학생회장이 10기 한총련 의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열린 '한국대학생 아리랑 축전'에서는 우리 민족의 100년사를 형상화한 서사극 '아리랑'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관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출범식 이후 한총련은 6월 15일 열린 민족통일대추전을 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최근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사회적 여론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흐름에 맞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평화대행진, 10만인 서명운동 등 합법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6면(사회)

익명의 80대 할머니 13억원 기증

불교학 발전 위한 연구비로 사용

독실한 불교신자인 익명의 80대 할머니가 본교에 13억원을 유언기증했다.

지난달 23일 유언집행대리인과 함께 송석구 총장을 만난 할머니는 정기에금 10억원과 3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기증하는 '유언공증증서'를 전달했다.

기금은 할머니의 당부에 따라 사망 후 불교관련 학술 연구와 교수·

학생들의 연구보조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본교는 할머니의 범명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기부자 예우 규정에 따라 부속병원 진료와 사후 장례 및 49재를 맡아 지내기로 했다.

독신인 이 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월남해 부산에서 포복상을 하며 평생 모은 재산을 기증한 것이다.

동국학원 신입이사 3인 선임

지난 2일 제184회 이사회에서

지난 2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84회 이사회에서 △현해스님(월정사 주지) △성오스님(범어사 주지) △지관스님(조계종 원로위원)이 동국학원 새 이사로 선임됐다. 이번 선임은 2명의 이사가 임기

만료되고, 1명이 임직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신입이사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후보자 6명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자격검증 후, 이사회를 통해 선임됐다.

축구부, 전국대회 출전

9일 명지대와 첫 경기

축구부(감독=김승기)가 오는 8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2002 합평 코리아배 전국대학축구대회'에 출전한다.

전국 50여 대학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본교는 9일 오전 11시 울산 서부구장에서 명지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축구부는 동아대와 11일 16강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된다.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진행된 '전국대학축계대회'는 선수 한 명이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도서관, 공공기관상 수상

사립대도서관협의회 수여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이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이하 사대도협) 공공기관상을 수상했다.

본교는 사대도협 설립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창립공로상을 수여 받게 되었으며, 지난달 26일 울산대 학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20여년간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정년퇴임한 윤장욱 전 학술정보관리팀장도 이날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편, 도서관은 오는 8일 개교기념일을 맞아 모든 자료실을 휴관한다.

보리수

욕심을 버리는 사회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대통령의 아들이라 심각합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앞장서서 비리에 개입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신성한 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리가 꼬이고 마침내 신성한 고기도 썩은 것입니다. 왜 파리들이 꼬였습니까? 권력의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힘은 큼니다. 우리는 유독 더 큼니다. 문제는 제도의 미비

입니다.

권력 행사가 전혀 제동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라는 매뉴얼도 없거나, 엉성합니다.

사안 사안마다 개인권력이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불건적 사고 방식도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권력이 아들에게 세습되는 줄입니다. 따라서 아들 권력도 아버지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세라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비리는 보이지 않는 권력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그렇게 커지다 어느 날 큰 덩치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죽어갑니다. 마치 사자의 죽음! 사자죽 이라는 하찮은 내부의 벌레에 의해 이뤄지듯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업력에 의해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환경에 집착하다가 본래 자성을 잃게 된다 하십니다. 버려야 합니다. 신파르타 태자가 버렸듯이 욕심을, 위세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염병은 몇 사

람만 치유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금강경에서 말한 머무는바 없는 마음, 즉 깨달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노직사 주지이신 종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장에 불이 있으면 천장에 달이 뜨고, 만리에 구름 있으면 만리가 하늘이니 단지 인생을 그림자에 속지 않게 사십시오"

남 선
불교방송 사회문화부장

제21회 스승의 날 기념

은사님께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옛 은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시기 없겠습니까?

- 행 사 명 : 은사에게 감사의 편지와 선물 보내기 (초·중·고등학교에 한함)
- 행사내용 : 초·중·고등학교 은사님께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동봉하여 소포로 발송해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02. 4. 25(목)~5. 9(목) 17:00까지
- 접 수 처 : 본관 학생복지실(☎ 2260-3048)
- 편지·선물 발송일 : 2002. 5. 10(금)

※ 유의사항 : 수신자 주소는 반드시 은사님의 재직학교 주소이어야 함.

학 생 처

동국웹진(Dongguk Webzine) 창간 1주년 기념 이벤트

2001년 개교기념일을 맞춰 창간한 동국웹진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펼쳐지는 각종 이벤트에 동국가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자와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상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1, 동국웹진 속에 퀴즈정답이!
정답을 맞춘 응모자 중 2명을 추첨해 64M MP3를 드립니다.

이벤트 2, 할말은 하고 산다!
동국웹진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좋은 의견을 주신 20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3, 감각 토크 동국웹진!
동국웹진으로 4행시를 지어주세요. 좋은 글을 주신 10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행사기간: 5월 7일 ~ 5월 14일
▶ 참여방법: 본교 홈페이지 및 웹진 응모창 이용
www.dongguk.edu
▶ 당첨자 발표: 5월 15일 동국웹진 54호

정 보 관 리 실

제17회 춘계명찰순례안내

- 순례일자 : 2002. 5. 24(금) ~ 5. 25(토) <1박2일>
- 순례장소 : 전라남도 구례군 화엄사
- 참가대상 :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 참 가 비 : 오천원 (₩5,000)
- 접수기간 : 2002. 5. 13(월) ~ 5. 23(목)
- 접 수 처 : 본관 3층 학생복지실 (☎ 2260-3048)
- 출발일시 및 장소 : 2002. 5. 24(금) 오후 3시 30분, 정각원 앞

학 생 처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 교수 초청 학술강연회 개최 안내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Moscow State University) 교수 초청 학술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교수와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강연자 :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 사학과 교수 Mikhail N. Pak (미하일 박)
- 강연제목 : 러시아에서의 '삼국사기' 연구 (Russian Translation of Samguk-Sagi)
- 사용언어 : 영어
- 일 시 : 2002. 5. 16(목) 15:00~
- 장 소 :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동국관)

연 구 처

2002학년도 제1학기 명사초청특강

우리들의 성(性) 이야기

- 일 시 : 2002. 5. 13.(월) 14:00~16:00
- 장 소 : 학림관 소강당
- 강 사 : 구 성 애 선생

◇ 강사 주요 약력 및 경력 ◇

- ▶ 내일신문 부설 성교육센터 소장
- ▶ (사)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전국 부회장
- ▶ 교육인적자원부 성교육 자원위원
- ▶ 현 아우성센터 소장
- ▶ 대학, 기업체, 관공서, 사회·종교단체 및 각 방송사 초청 성교육 특별 강연 300회 이상

◇ 강사 주요 저서 ◇

- ▶ 구성애의 성교육(1995, 석탑출판)
- ▶ 유아 성교육(1995, 대한가족계획협회)

학 생 처 · 여 학 생 실

박물관 활성화 방안 모색

인력·사업부족 해결 시급

예산확대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해야



최근 해외대학교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대학 박물관은 문화유산 보존과 함께 대외의 이미지 제고까지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교 박물관(관장=장종식·미술사학)은 국보 2점을 비롯한 3천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지만 시설 등의 제약으로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물관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부족이다. 현재 본교 박물관은 2명의 학예연구원과 2명의 조교가 유물관리부터 전시품 설명까지 박물관의 모든 일을 맡고 있어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 어려운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학예연구원 제도가 2년마다 교체되는 '임기제'이므로 지속적인 사업도 계획하기 쉽지 않다.

또한 박물관의 협소한 공간과 시설부족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현 박물관은 1963년에 전산원 용도로 지은 건물로 타대학에 비해 전시장이 좁고 노후

하다. 때문에 박물관은 외부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특별전시회 등을 활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타대학의 경우 고려대 박물관은 도봉문화원과 함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영남대 박물관 역시 문화강좌를 개설해 학생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본교 박물관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산의 확대편성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학교는 박물관의 교육·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박물관은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전문 학예연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의 조현복(동의대박물관 연구원) 간사는 "전문 연구원 제도가 도입되면 연구원의 신분이란 점에 장기간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박물관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학의 특성을 살려 한 분야의 전문박물관으로 자리잡는 것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다. 본교의 경우 다수의 불교미술 관련 유물·자료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미술박물관'으로 특성화한다면 본교 학생들 뿐 아니라 외부 관람객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 '어학박물관' 단국대 '복식박물관' 등이 특성화를 꾀한 박물관의 좋은 예다.

앞으로 학교의 예산지원 확대와 박물관의 다양한 사업계획,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본교 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을 기대한다.

김하나 기자
sellonye@dongguk.edu

부처님 오신날 다양한 기념행사

오늘(6일) 수계법회·교내점등식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이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오늘(6일) 오후 4시 중앙당에서 수계 대법회를 연다.

오복원 이사장이 수계사로 참석하는 이번 법회는 본교 교수·학생·직원과 동국학원 산하 초·

중·고등학교 교사 1,370여명이 계를 받는다. 이어 오후 6시 30분에는 불상 앞에서 교내점등식이 열린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학내에 설치된 5천여 개의 연등은 이사장을 비롯한 4명의 대표단이 점등하며, 오는 19일까지

임금협상 1차 실무위 결렬

노조 12.5% 학교 5%제시

직원노조(위원장=김정태)와 학교당국의 임금협상 1차 실무위원회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지난달 30일 총무처장실에서 열린 실무위원회의는 노조측이 요구

한 임금 12.5% 인상안에 대해 학교측은 "등록금 인상폭과 같은 임금 5% 인상"을 제시하면서 결렬됐다. 2차 실무위원회는 오늘(6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학내를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각원 안중철 법사는 "점등은 어리석음을 소멸시키고 슬기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지혜의 햇살을 밝히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또한 조계종 주관으로 열리는 제등행사가 오는 12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본교 불교도연합 등 불교관련 단체가 참석해 각 단체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앞세우고 조계사까지 행진한다.

독일자매대학 총장 방문 교류 활성화 추진

자매대학인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 총장이 오는 13일 본교를 방문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교환학생 교류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96주년 개교기념식 내일(7일) 진행

90주년 기념 문화관에서 ... 교직원 대상 표창장 수여

제96주년 개교기념식이 내일(7일) 오전 11시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에서 열린다.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철학) 총장, 전일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개교 기념식은 △삼귀의례 △국민의례 △발원문 봉독 △학교연혁보고 △표창장 수여 △취창 수여 △총장 기념사 △이내외귀빈 소개 △총동맹회장 축사 △내외귀빈 소개 △교가제창 △사후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표창장은 장기근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30년 근속 △20년 근속 △10년 근속으로 나눠 수여되며, 수상자는 이민웅(생물학) 교수와 최창선 불교종합병원 및 제3캠퍼스

건립추진단 본부장을 비롯한 52명이다.

또한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장오현(경제학) 교수 △홍운식(사62졸)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교장 △김경재(농학69졸) 재미 1A 동문회장 △이근영(통계67졸) 아리조나 동문회장에게 회장 중 은장을 수여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점심과 기념품이 무료로 제공된다.

김태홍 김용욱 임영정 박명희 황주환 오광진 이성진 김성근 박승종 김두재 김진광 이근재 이정희 이영숙 임조경 김상애 서천용 김옥자 함정실 김진수 한문우 김계현 박동수 이우용 △10년 근속=정재형 정승석 김영민 이병철 이영재 김동철 이명천 이종태 정태실 강형석 김영수 김봉주 노장우 김진환 최기석 주성재 송민수 최일우 정경섭 류변성 박종진 김정환

장기근속 표창대상자

△30년 근속=이민웅 최창선 안영덕 △20년 근속=황해인 박영길 이상현

공로상 수상자

△1급=김미경 △2급=임해순

인터넷 법대신문 발행 학내 정보 공유의 장

법대학생회(회장=김본진·법4)가 '인터넷 법대신문'을 발행했다.

'인터넷 법대신문'은 법과대학생회 홈페이지(http://dgulaw.net)에서 볼 수 있으며, 법대 학생 중심으로 학내 여러 정보를 전달한다.

이와 관련해 법대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 학내 상황에 대한 법대인의 시각을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간 '동국의 창' 발간 문화정보 중심 학교 소식지

학교 소식지 '동국소식'이 이번 호부터 '동국의 창'으로 제호를 바꿔 3개월에 한 번씩 발간된다.

'동국의 창'은 기존 소식지와 다르게 매달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관련 문화정보를 중심으로 학내 정보를 함께 다룬다. 이번 호는 불교 문화를 주제로 사원 및 불교사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홍보실은 소식지를 약 2만 부씩 발행해 정부단체, 기업, 동문, 교직원, 학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내일 무료배식 실시

생활협동조합(이사장=허천택·영어영문학)이 개교 96주년을 맞아 내일 무료배식을 실시한다. 제공되는 음식은 잔치국수와 떡이며, 배식장소는 상록원, 동국관, 학생식당과 원흥관 라리수 매점이다.

연등과 축원문 공모 여학생실에서 접수

여학생실(실장=이혜은·지리교육)이 제4회 연등과 축원문 공모를 오늘부터 실시한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여학생실과 정각원이 함께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연등을 만드는 연등 부분과 축원문 부분으로 나눠 실시한다.

연등부분은 창의적인 연등을 만드는 대회이며, 축원문 부문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내외 또는 A4 2매 안팎의 분량으로 축원문을 쓰면 된다.

발표과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불상 앞에서 진행되며, 부문별로 △ 으뜸상 △ 버금상 △ 이차상 등으로 나눠 시상한다.

도서신관 주변 공동구 공사 가스·전기·수도 선 한곳에

도서신관과 그 주변 건물의 관계이름, 도시가스, 전기·수도 선 등을 한 곳으로 모으는 '공동구' 공사가 다음달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 구간은 도서신관부터 각각 원흥관, 상록원, 과학관이며 이번 공사로 인해 앞으로 전기·수도 등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 소음·통행제한 등으로 학내 구성원들이 불편을 겪겠지만 장마를 피하기 위해 공사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영문국제불교학술지 발간 불교세계화 기여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에서 영문으로 된 국제불교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istory of Buddhist Thought'를 발간했다.

이 학술지는 불교의 세계화 기여와 불교학자간의 국제적 교류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일년에 두차례에 걸쳐 발간될 예정이다.

불교문화연구단은 본교 불교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6개국 학자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편집위원장 김용표(불교학) 교수는 불교의 보편적 이해를 돕는 연구내용을 담은 '불교와 종교철학'을 출판했다.

원흥, 체육대회 개최 단체전·개인전 등 종목 다양

대학원 총학생회(회장=김영주·사회학 석사과정)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체육대회 '합다지기'를 대문동장과 만해광장에서 개최한다.

단체전 종목은 △축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단체줄넘기, 개인종목은 △장기 △공기놀이 △팔씨름 △물풍선 받기이다. 예선전은 13일, 결승전은 16·17일에 치르며 상품은 도서 상품권 등이다.

참가를 원하는 원흥생은 오늘부터 10일까지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전무대

한물 간 수법

○...캠퍼스에 불어온 색깔론(!) 얼마 전 총장실 접거농성과 관련해 학교측이 배포한 유인물에는 흥미로운 문구가 있다는데.

총학생회들 '사상적 오류'인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지목한 부분이라고.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비난은 둘째 치고라도 총학생회가 이를 지향한다는 판단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이에 한 학생 왈, "빨간색 안경은 이제 그만, 유행이 지났더니까요."

안되는 안내

○...요즘 공대와 정산대 학생들은 '소문'의 진상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이 한창이라는데.

알아보니 이번 학기부터 BSM과 목에 추가된 컴퓨터영역 두 과목이 종합강의시간표에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안내정보 부족으로 추가과목 수강대상이 신입생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착각했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0월 0일 안내(?)의 일기 - 한 일 없음."

열린 화장실

○...문화관 1층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컵돈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데.

알아보니 문화관과 학술관 사이의 휴게공간을 지나다보면 화장실 안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라고.

창에 불투명 필름을 붙이거나 블라인드를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보일듯이 보일듯이 보이지 않는~"

소화불량제

○...요즘 상록원 학생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명진관으로 향하는 일부 학생들이 소화불량 증세에 괴로워 한다는데.

알아보니 각목에 음식을 쓰레기를 모아놓은 통이 있어 학생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기처럼 식당 근처에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해 둔 것은 이용자들이 배려하지 못한 학생식당측의 처사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화제의 드라마 '음식을 처리 실패기' 곧 방영?"

2003년도 졸업앨범 촬영일정표(최종안)

| | 5월 6일(월) | | 5월 7일(화) | | 5월 8일(수) | | 5월 9일(목) | | 5월 10일(금) | |
|-----------|----------------------|-------------------------|---------------------|---------------------|-------------------------------------------------------------------------------------------------------------------|----------------|---------------|---------------|-----------------|-----------------|
|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 9시 | 영문(주) 국문/문장 | 응용생물 독어독문 철학 | 통계 화학 수학 | 반도체 식물 산림 물리 | 개교 기념일 | | 가정교육 인도철학 기계공 | 전자공학 | 영화영상 연극 사회 참여중문 | 토목공 정치외교 수교 |
| 1시 | | | | | | | | | | |
| 1시 | 응용생물 독어독문 철학 | 영문(주) 국문/문장 | 반도체 식물 산림 물리 | 통계 화학 수학 | | | 전자공학 | 가정교육 인도철학 기계공 | 토목공 정치외교 수교 | 영화영상 연극 사회 참여중문 |
| 5월 13일(월) | | 5월 14일(화) | | 5월 15일(수) | | 5월 16일(목) | | 5월 17일(금) | | |
| 9시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 | 법학 미술 사학 일어일본 | 생명자원 윤리문화 경제 | 북한(아) 건축공 선행 | 전기공 역교 불교 | 정보관리 식품공 경제(아) | 경영 | 지교 체교 광고 | 행정 국제학 국제통상 | 정보통신(아) 신방 | 국교 교육학 회계/세무 회계 |
| 1시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 | 생명자원 윤리문화 경제 | 법학 미술 사학 일어일본 | 전기공 역교 불교 | 북한(아) 건축공 선행 | 경영 | 정보관리 식품공 경제(아) | 행정 국제학 국제통상 | 지교 체교 광고 | 국교 교육학 회계/세무 신방 | 정보통신(아) 신방 |
| 5월 20일(월) | | 5월 21일(화) | | 5월 22일(수) | | 5월 23일(목) | | 5월 24일(금) | | |
| 9시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 참고사항 실내촬영장소 : 연화원(학생회관 2층) 실외촬영장소 : 팔정도(불상주변) → 우천시 실내촬영은 가능 | | | | | |
| | 정보관리(아) 경영 산업공/정보시스템 | 컴공/컴필 정보통신 | 화학공 국제통상(아) 영어영문(아) | 경영(아) 회계(아) 세무회계(아) | * 기타 문의사항은 daum카페(동국대졸준위/dguj14)나 졸준위로 연락바랍니다. ☎ 2260-3613 → 4학년과대표는 반드시 카페가입요망 (우천시 일정변동이나 정보공유를 위한) | | | | | |
| 1시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 | | | | |
| | 컴공/컴필 정보통신 | 정보관리(아) 경영 산업공/정보시스템(아) | 경영(아) 회계(아) 세무회계(아) | 화학공 국제통상(아) 영어영문(아) | | | | | | |

졸업준비위원회

2003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0000명

2. 지원자격

- ① 2년안으로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자
- ② '05. 3. 1 기준 만 20세 ~ 27세까지의 남자
- ③ 군 인사법 제10조 정교임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④ 휴학생이라도 2학년여 복학하여 4학년 졸업이 가능한 자
다음해 3학년 복학이 가능한 자
- ⑤ 카슈사, 어학병, 기타 이중지원자는 선발 제한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02. 3. 11 ~ 5. 11

4. 구비서류

- ① 지원서(양식 배부) 1부
- ②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초본 각 1부
- ③ 수능/대학 1학년 성적 증명서(열람용) 각 1부
- ④ 전연성 사진(4x5cm) 4매
- ⑤ 신원진술서 1부
- ⑥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⑦ 면접관련서류(양식 배부) 각 1부
- ⑧ 국가유공/장기근속자제, 특기/국위선양자 확인서 1부(해당자)

5. 선발 방법 / 일정

| 구분 | 방법 | 일정 |
|----|--------------------------|-------------------|
| 1차 | 서류전형,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평가 | '02. 5. 13 ~ 6. 1 |
| 2차 | 종합검증 인성검사, 신원조회 | '02. 6. 3 ~ 11. 9 |

6. 최종 합격자 발표 : '02. 11. 16

7. 특전

- ① 대학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
- ② 국내외 민간 대학원 국비 취학가능(장기 지원자)
- ③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장기 지원자)
- ④ 군 복무기간중 복지 혜택
-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험 혜택
- 결혼시 군관사입주, 휴가/출장시 휴양시설 이용, 대학원 진학시 교육비 지원
- ⑤ 전역시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 ☎ 02-2260 - 8537

제112학생군사교육단

취업대비 직무적성검사 실시

많은 기업에서 인재의 선발·배치에 적성검사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자기적성 파악 및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기업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적성검사를 실시하오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검사 종류 : 매경 직무적성검사

2. 검사 일시 및 장소

- 01차 : 5월 14일(화) 오후 3시 학림관 소강당
- 02차 : 5월 14일(화) 오후 5시 30분 학림관 소강당
- 03차 : 5월 15일(수) 오후 3시 학림관 소강당

3. 검사 소요시간 : 90분

4. 대상 : 1, 2, 3, 4학년 전교생

5. 비용

- 총 비용 6,000원, 학생 본인부담 2,000원
- 나머지는 학생상담센터와 졸준위가 지원
- 검사 해석 및 상담은 무료

6. 접수기간 : 5월 9일(목) ~ 5월 14일(화)

7. 접수 방법 : 학생상담센터나 졸업준비위원회로 단체 또는 개인 접수

* 문의 : 학생상담센터 ☎ 2260-3931, 졸업준비위원회 ☎ 2260-3613

학생상담센터 · 졸업준비위원회

사설 열린 대화 촉구한다

학생회의 총장실 접근가능성이 어느덧 한 달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학교와 학생회는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소모전만을 계속해 왔다. 이는 학교가 접거 상태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자리도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학생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접거를 풀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좀처럼 협의가 성사되기 어렵다. 하지만 접근가능성이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학교와 학생회는 무엇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가져왔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애당초 양측 모두 '동국발전'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과 같은 오랜 대치 국면은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진정 동국발전을 원하는 것이라면 학교와 학생회 모두 더 이상의 소모전은 그만두고 열린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양측이 대자보와 유인물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면, 이제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토론자리를 마련해야 할 때인 것이다.

우선 토론이 가능하려면 총학생회는 "총장실 접거 상태에서는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학교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고려해 접거 해제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학생회가 접거를 풀기 전 학교측과 사전협의를 통해 토론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성격규정부터 합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토론에는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쟁점사안인 불교종합병원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토론회의 성격은 양측의 의견조율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선 학내 주체들에게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장

실 접거에서부터 학교측의 유인물 배포까지 학내 구성원들의 불교병원에 대한 관심은 여는 때보다 높다. 때문에 병원과 관련해 진행되는 토론회는 반드시 공개되어 학내 구성원들의 의문점들을 풀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교종합병원과 관련해 공개적 답변을 요구하고 나서는 학내 재주체들의 참여 또한 개방적으로 열려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토론회가 학교와 학생회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 토론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기존의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가장 합리적이고 시급한 대안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학교와 총학생회의 선택만이 남았다. 학교와 총학생회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소모전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 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논단

서주석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 쪽에서는 이미 제작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간에 서로 적대 및 비방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미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에 변화가 없고 남북간 긴장완화나 신뢰구축 등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삭제할 경우 국민의 대북관이나 장병의 대적관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방적 삭제 또는 수정에 반대하고 있다.

없다고 한다. 남북국방장관회담은 곧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을 의미하며, 이것이 열려야 경의선 공사 등의 군사적 보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긴장완화 및 군비통제 조치가 협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담 거부의 파장은 작지 않다. 자칫 지난 4월초 우리 특사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담판해서 얻어낸 성과들이 초기 단계부터 실현되지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른바 '주적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적' 또는 '적'이란 개념은 21세기 상호의존의 시대에 기본적으로 은밀하게

21C에 남겨진 냉전시대 유물

'주적'이란 개념은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과거 상대 진영에 대한 부정과 자기방어가 생존의 조건이었던 시절, 미·소 등은 제각기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이에 대응한 국방 및 군사정책을 수립·운용했다. 그러나 적어도 냉전 종식으로 명확한 위협이 사라지고 불특정 또는 잠재적 위협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주된 적대 세력' 또는 '주된 위협 제기국'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는 물론 표면상의 상황일 뿐 세계의 거의 모든 군대는 자국 방어를 위해 '가상 적'의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경우 '주적'이란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간 것은 1995년부터이다.

이는 1994년에 탈냉전에 따른 국방 목표의 조정으로 과거의 '적' 규정이 '안보 위협'으로 대체되고 내용이 당시의 국방백서에 그대로 수록되어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은 뒤였다. '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모두를 적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바꾸려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주적은 북한'이라는 특정한 표현으로 대체되면서 오히려 남북관계에는 더 큰 부담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우리의 '주적' 개념이 "동족 말살의 논리"라면서 이를 철폐하지 않으면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열 수

유지될 필요가 있는 군사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나 점차 평화공존 및 통일까지 염두에 둔다고 할 때도 있어야 하는 개념으로 본다. 다만, 이는 비공개 군사계획에 명시하든가 안보교육, 군정신교육 등을 통해 암묵적이지만 인지되는 방법으로 유지되면서 국가안보와 국방의 '버림목'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비해 '주적' 표현의 문제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우리 국내정치와 언론에서도 큰 논란이 되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상황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개폐가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현재 그러한 상황이 조성됐는가 하는 점은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먼저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장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전단계로서 군사실무회담이라도 열려 경의선 공사의 진전이 있어야 하며, 남북 군사당국간에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대한 합의와 이행이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같은 상황 변화가 있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합의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정부로서도 국방과 대북관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보다 손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및 국내정치 상황에서 굳게 매듭 지어진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국민적 노력과 지혜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한의사 전문의 자격 논란

전문의 취지 흐리는 집단 이기주의

최근 한의계가 전문의 자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월 26일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는 곧 반발에 부딪혔다. 일선 한의사들은 지난 3월 23일 한의협 지도부를 교체함으로써 항의 의사를 표시했고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도 현재 중간고사를 무기한 연기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 전문의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양방과 달리 한방은 90년도에 와서야 전문의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방에 전문의를 도입할 경우 양방과 같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양방은 전문의가 지나치게 많이 배출돼 교육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전한련은 전문의 제도 도입시 우려되

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문의임을 내세워 개인병원을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로컬표방금지'와 이미 수련의 과정을 거친 의사들에게는 전문의 시험자격을 주지 않는 '경과조치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이 요구안을 받아들여면서 지난 99년 한방전문의 제도가 도입됐다.

그런데 올해 개정안에 △한의과대학 부교수 이상 전문의 인정 △한의과대학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수련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한의사 전문의 일부시험면제라는 특례가 포함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난 99년의 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한방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전문의 제도와 이반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견제할 단계로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또한 한의협은 2006년부터 중국 한의사들

※ 한의사 전문의 제도 시행 과정

| 연도 | 내용 |
|-------|--------------------------------------------------------------------------|
| 1994년 | 의료법 제55조에 '한의사' 삽입, 정부에 의해 전문의 제도 시행일자 정해짐, 한의계 도입 논쟁 발원. |
| 1998년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100대 과제에 '한의사 전문의 제도 실시' 포함. 관계단체와 협의 및 의견수렴 거쳐 규정안 마련. |
| 1999년 | 관계부처와 협의 및 입법예고. |
| 2000년 | 본격 시행. |

의 국내 개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특례에 해당하는 자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전문의를 많이 배출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99년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전한련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본교 한의대 김영수(본2) 회장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의를 도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잘못된 전문의 선호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한의협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병협은 값싼 인력인 수련의를 쓰기 위해 전문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병협과 한의협이 개정안을 통해 의료 체계의 효율성은 뒤

로 한 채 이권 쟁기에만 바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 사안의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전한련 강민구(경산대 본2) 의장은 "한방 의료체계는 한의계와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전문 의 제도는 과목별 발전과 한의사의 지위 확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실시하게 된 제도다. 이러한 취지 아래 도입된 전문의 제도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변질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함민희 기자
llith@mail.dongguk.ac.kr



용어설명

△전문
일반한의사가 1차진료를 담당한다면 전문한의사는 전문화된 과목의 2, 3차 진료를 담당한다. 즉 전문의는 특정한 1개 과목에 대한 수련경력을 바탕으로 2차진료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한의사의 역할은 의료의 전문화를 위해 '특정 질병에 집중하거나, 신체의 특정부분에 국한하거나 제한된 연령층을 진료하거나' 하는 등의 특정한 서비스 위주여야 한다.

△로컬표방금지

개업한의원에서 전문과목을 내걸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문의가 의원

에서 자신이 전문의임을 내세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없애자는 의도에서 제기됐다.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전문의는 수적으로 적게 배출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경과조치 폐지

경과조치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 이미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경과조치가 적용되면 일정한 보수교육을 마친 이미 배출된 수련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전문의의 대량 배출을 피할 수 없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 | | | |
|----------|-----|-----------|-------------------------------|
| 발행인 | 송석구 | 인터넷 동대신문 | http://dgupress.dongguk.ac.kr |
| 편집인 겸 주간 | 김호성 | 인터넷 동국대학교 | http://www.dongguk.edu |
| 부주 | 장영길 | 구독문의 :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
| 편집국장 | 류변성 | | |
| 편집장 | 손상민 | | |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기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8-1270 전화 (054)770-2168 팩스 (054)770-2167

동약문

외로운 독학



"변리사 시험은 국물(?)도 없나요?" 얼마 전 학교 홈페이지의 건의사항 게시판에는 한 학생의 불안 섞인 글이 올라왔다. 국가고시만큼 어려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시설지원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핵심이었다.

변리사 시험은 특허·의장·상표에 대한 감정자격을 주는 시험으로 국내외의 특허법과 영어, 나아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때문에 몇몇 학생들은 '고시'지만 불지 않았던 수준은 고시나 다름없다는 말을 내뱉기도 한다.

그러나 본교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사법·외무·기술·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와 일부 자격증 시험 뿐이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견을 모아 학교에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야 하는 시험 성격상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소식이 일정치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생회 차원의 요구는 불가능해 개개인이 단발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학생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학생복지실에서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계획을 논의 중이다.

"장학금보다 더 급한 건 독서실과 자료실 아니야?" "맞아. 입시정보를 구하기 너무 어려워."

장학제도와 함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인할 때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충분한 입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실의 마련 역시 학생들에게는 시급하다.

앞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눈에 보이는 타이틀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숨은 노력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매년 5월 1일은 전세계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를 과시하는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노총 주최로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세계 노동절 제112주년 기념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의 참가자 중에는 민영화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던 발전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의 주변인으로 여겨져 온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올해 노동절행사를 살펴본다.

편집자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노동절

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올 상반기 노동계 최대의 사건으로 공기업 민영화 논란과 발전, 철도 노조의 파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발전 노조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반발해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38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쟁점 사항이었던 민영화는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채 파업이 마무리됐고 발전노조 조합원 348명이 해고를 당했다. 이에 해고자들이 계속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명동성당에서 지도부들이 계속 농성을 하는 등 발전노조 파업이 남긴 후유증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5월 1일 열린 노동절 기념대회에 발전노조 조합원들이 각 지부별 깃발을 앞세운 채 참여했다. 하지만 참가자 중 대다수는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었고 현장에 복귀한 노동자들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이에 대해 울산 화력지부의 한 노동자는 "회사에서 직원을 모아 놓고 노동절 집회에 가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오늘도 회사간부들이 와서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전근대적인 노조 탄압은 발전노조 조합원들에게 그다지 낯선 것이 아니다. 작업장에 복귀하자마자 발전노조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거부'를 외치고 있다.

원들은 '이번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다시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강요받았다. 또한 급여체통장에서 월급의 50%가 빠져나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겪어야 했다. 회사 측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조합원들에게 받아내겠다고 신청한 가압류 청구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발전회사 측은 지난달 29일부터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불법파업 참가자 행동 기록표'를 작성해 노조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 간부들이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각 A, B, C급으로 분류해 매일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평소에 노조활동을 열심히 한 탓에 회사에 '비운 털이 박혀' 해고당한 노동자 348명은 지금도 계속 회사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광택 화력지부의 유모(43) 씨는 "해고자들의 공백이 심각한 만큼 조만간 열릴 4차 인사위원회 때 구제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노동자의 날, 노동자를 만나다

장애인·이주 노동자를 만나

그들 속 또하나의 그들

한국의 노동자 사회라는 그들 속에는 또 하나의 그들이 있다. 노동비자 발급, 단속추방 금지 등을 외치는 이주 노동자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사원서조차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이러한 '그들 속의 그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절 기념대회를 시작하기 1시간 전, 행사 준비와 사전 집회로 분주한 여의도공원의 한 쪽에서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 외국인 등 몇몇 집단들의 특별한 문화제가 진행됐다. 그것은 '불안정 노동자와 함께 하는 2002 May-Day 문화행동'이었다. 이번 행사는 이들의 권리회복 운동이 더이상 소수자의 운동이 아닌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임을 알리는 자리였다. 여기서 이들은 노동자 모두가 함께 하는 권리 찾기 운동을 주장했다.

문화제가 끝난 후 이들에게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연설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여기서 '장애인 노동자 2%고용 의무화, 자진신고제 반대' 등을 주장했다.

휠체어를 탄 채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지체장애인 김운수(27) 씨는 "장애인들의 경우 재취직이 어렵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하는 등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하기 힘들다"며 "비장애인들도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 우리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 인터뷰

“‘우리 한총련’ 되어 대중속으로”



진행했다.

이번 출범식은 명칭을 '한국대학생 5월 축전'으로 바꾸는 한편 '한국대학생 아리랑 축전', '한총련

올해로 10살을 맞이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김형주·전남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의 생일잔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서울산업대에서

추천마당' 등 많은 볼거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을 만나 출범식 이후 한총련의 사업과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 최근 한총련이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 대의원대회 등에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의견을 하나로 모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볼 때 한총련이 통일된 하나의 모습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비운 뒤 땅이 굳어지

듯이 한총련은 갈등의 모습이 보일수록 하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 이번 한총련 출범식의 특징은.

= 6.15 남북 공동선언 두 돌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입국사의 방북 후 개선된 통일 정세에 맞게 명칭을 한국대학생 5월 축전으로 바꾸고 학생·대중을 끌어안는 열린 출범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얼마뒤 진행할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보다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날짜도 다른 해보다 빠르게 잡았다. 출범식은 민족통일대축전을 좀 더 열심히 준비하려는 결의의 자리가 될 것이다.

- 한총련의 합법화와 대중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대중화·합법화 문제는 한총련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점이다. 현재 갖고 있는 구체적 계획은 의장 경선에 출마했던 김재현(한국외대 총학생회

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합법화 촉구 전국 평화대행진'을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청와대와의 면담요청, TV 토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설 것이다. 이를 위해 한총련 내에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건설할 계획이다.

- 10기 한총련만의 모토가 있다면.

= '우리 한총련'을 만드는 것이 10기 한총련 모든 사업의 기본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집과 같은 단어에서 느낄 수 있듯이 우리라는 말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총련이 합법화를 이뤄내고 대중들 속에 보다 가까이 자리잡아, 모든 사람들이 한총련을 부를 때 '우리 한총련'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기간 : 2001. 12. 15 ~ 2002. 4. 21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 △1억원 조선태회(회장:이화일)
△2천2백50만원 한국RF
△1천5백만원 경화상사
△1천만원 김영중, 무비스님, 박숙아, 병진스님, 윤세원, 정의환
△8백50만원 배도원르스님
△5백만원 보명스님, 비구니마하회, 순형스님, 이병운, 최정수, 현공스님
△3백20만1천791원 ARS입금액
△3백만원 덕은스님, 민창식, 정재선
△2백만원 김인숙, 대혜스님, 법해사관음회, 불교대학원1기동문회, 우제선, 지명스님, 허보현성, 혜원스님
△1백25만원 김원철
△1백81만원 신하균, 이명규.
△1백만원 강민정, 고상영, 권현철, 김기동, 김병래, 김상길, 김성자, 김시현, 김정석, 김종철, 김혁배, 김현정, 김혜경, 김효원, 나가중, 노영희, 문인에, 박경옥, 박봉석, 박상익, 박석희, 박영숙, 박인숙, 박재현, 박종원, 방중혁, 백화회상, 변승현, 서법석, 성문스님, 성재주, 성호스님, 안영섭, 양연준, 오명일, 오재필, 위희정, 유승훈, 윤옥순, 이강숙, 이군자, 이란영, 이봉근, 이재곤, 이준영, 이지

- △65만원 강병기
△50만원 김영환, 노봉호, 맹정자, 박재남, 이영환, 이운진, 차재영
△40만원 문현주, 이재우, 장명순, 장영자
△36만원 홍병진, 홍지수, 홍지혜
△35만원 전용숙
△30만원 권미영, 김도원, 김수태, 김종민, 김주경, 김진환, 김태숙, 김필자, 무주상원심회, 박태련, 서승열, 손현수, 송석열, 임기현, 여현정, 오순자, 이수경, 이흥연, 조금란, 조요진, 한마음회
△25만원 김숙배, 이용선
△23만5천원 김재문
△20만원 권순관, 김성대, 동원지질, 민부영, 서병달, 안대승, 양승철, 양유성, 이상분, 이선희, 전재운, 정해근, 한진순, 허진옥, 이명
△18만원 박순아, 홍순아
△14만7천원 김상수
△14만원 전성수
△13만원 유춘희
△12만원 문성환, 윤용대, 정경수

- △10만2천원 이명자
△10만원 강성만, 고거복, 김상사, 김동기, 김동수, 김성덕, 김순일, 김효영, 김화영심, 나순옥, 박동규, 박만성, 박민정, 박영옥, 박정효, 박희란, 방지호, 백대운, 백진현, 백현웅, 서광옥, 송금수, 신성원, 신영숙, 심재환, 양운정, 유인목, 윤양명, 이길영, 이대선영, 이숙녀, 임지호, 임지희, 임준복, 장노미, 조월성, 최복숙, 최숙희, 한정원화, 임명3명
△8만원 서영근, 양성규, 오근석, 장성우
△6만원 우정, 이창수, 최장영
△5만원 김경남, 김성숙, 김성진, 김중영, 김현정, 박문수영, 박순진, 박승복, 박영목, 박진신, 서인자, 신순남, 신정철, 신철희, 신형식, 심인화, 양승진, 윤진영, 윤지승, 이나리, 이나주, 이선자, 이송연, 이영숙, 이옥례, 이우리, 장순례, 정정춘, 정해련, 주정옥, 하성희, 이명3명
△4만원 김순자, 김용국, 김철심형, 문정운, 안순남, 이순옥, 이창식, 조봉철, 진관사, 황배영, 황성문
△3만원 강신환, 김민정, 김우중, 나동환, 백재승, 석지형, 안영순, 유숙현, 이명휘, 이미자, 이병석, 이옥경, 이창경, 임승도, 조정숙, 최명자, 황복희, 이명
△2만5천원 김용순, 박순례

- △2만원 강형자, 권혁재, 김범수, 남광주, 송환철, 안상희, 유승래, 이기중, 이동아, 이명식, 이유행, 이철은, 황창오, 익명4명
△1만5천원 이정자, 조남옥
△1만원 강복식, 김선희, 김순자, 류중현, 문금순, 문정순, 백일호, 송순규, 오세현, 이대희, 이병호, 이태중, 장용희, 정연수, 정영모, 정주봉, 정형구, 조금옥, 허찬규, 익명7명
△5천원 오금주, 오세현, 이혜진, 정동준, 익명

발전기금

- △2백만원 사회과학대학원졸업생
△1백만원 강영화, 강현숙, 광근, 구관민, 김상일, 김순, 노현균, 설지철, 양홍식, 이종일
△30만원 문병원, 서보영, 황명자
△20만원 강대문, 정원희

장학기금

- △2억원 익명
△2천7백만원 생활협동조합
△7백29만원 아주하이텍
△6백96만원 이수룡
△6백만원 주승균
△3백만원 정성도
△2백만원 혜원스님

- △1백만원 이준영
△50만원 김영수

특정목적기금

- △18억원 한의학과총동창회
△9천7백만원 심용섭
△1천7백만원 한국에보트
△9백60만원 문진미디어
△50만원 김복순
△30만원 이연환
△5만원 이영경, 정내원

단위기금

- △12억4천만원 익명
△3백만원 주대관문교기념회

동국사랑저금통기금

- △16만15천960원 남양국
△5만5천780원 조병복
△5만5천190원 박근서
△4만1천7천000원 박관오
△3만5천500원 엄기연
△3만2천430원 박세환
△9천460원 김홍모

기금접수 ARS 안내

060-7000-119

- 금 액 : 전화 1통화에 5,000원 (1일 중복되는 것은 1회만 인정)
■ 문의처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02)2260-3300, 2260-3793~5

서평 - 완당평전(저자 유홍준)

추사 김정희의 삶·문학 그리고 예술

평전은 입전 인물의 생애를 가장 방불하게 그린다는 전기문학의 일차적 목표를 지향함은 물론, 나아가 전기 작가 스스로가 자리한 시대와 문명의 역사까지를 동시에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평전이라는 입장의 자유로움을 통해 전기 작가의 관점을 넓게 열면서, 인물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동시에 감당하고자 한다. 이 '완당 평전'의 경우, 지은이는 "추사 김정희의 삶과 학문과 예술을 아우르는 평전을 시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그의 "글과 시·서·화의 작품들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하여 삶을 불인 것"이라는 저작 태도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책의 체제를 살펴보면 먼저 10장으로 나눈 시대구분부터가 주인공의 생애와 학문 예술의 발전과 변화를 잘 가능할 수 있도록 주제사적으로 훌륭히 고안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것은 제2장 '영광의 북경 60일'을 따로 세워 완당 연행의 중요성을 조선 '북학' 형성의 맥락 위에서 다루고, 제5장의 '완당 비파'에서 완당의 학예상의 성취와 국제적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의도가 두드러져 보인다.

또한 이 책의 특징은 아무래도 지은이 유홍준 교수의 글쓰기 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은이의 글쓰기 방식의 큰 줄기는 풍부한 자료와 도판의 활용에서 두드러지고, 지은이는 이를 따를 흐르듯 써 내려가는 비교적 안정된 학문적 글쓰기를 취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지은이가 갑자기 혹은 슬며시 시공을 넘어 스스로 이 완당의 생애에 불쑥 끼어드는 이야기 방식이다. 이런 글쓰기야말로 그가 터득한 특유의 표현 방식이면서 평전의 형식을 동양화적 그림 그리기로 조형화하는 시각적 입체적 효과를 배가한다.

이 '완당 평전'의 진가는 바로 150년 완당 연구의 축적을 비판적으로 수렴한 저작의 의도 위에, 지금까지 주로 각각의 관점에서 논해 온 수많은



완당의 모습들을 총체적 인간상으로 정리를 시도한 최초의 저작이란 점에서 획기적이다. 특히 새 자료를 포함한 수많은 원자료를 씨줄로 삼아 전기의 내용을 스스로 보충하고, 여기에 발로 확인한 증거와 독특한 해석의 논리로 설득력을 더했다.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지은이는 서장에서 "조선시대 사상과 학문의 세계에서 다산 정약용이라는 실학의 정점에 올라서면 저 멀리 추사 김정

희라는 거대한 산이 또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또 "완당의 학문세계는 '실사구시설'로 요약된다"고 했다. 확실히 조선후기의 실학은 이익 이래의 경제치용과 홍대용 이래의 이용후생에 대하여, 김정희의 실학을 '실사구시'로 이해하면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런데 완당의 실사구시는 사실에 의거해서 진리를 밝힌다는 태도를 표방하면서 고증학에 흐르고, 웅방 강의를 관련이 강조된 데 비하면 정약용 이후의 거대한 산으로서 사상사적 자리 매김은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재미와 믿음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는 수많은 편지나 시문들 가운데서도 특히 시의 경우에는 출전이나 번역자를 밝혀주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또 거의 매 쪽마다 이어져 나오는 인용문은 내용의 이해나 사실의 믿음성을 위해서 필요불가결의 자료이면서도, 자칫 독서의 흐름을 끊을 우려도 없지 않다.

마지막으로 지은이 유홍준 교수는 "이 책을 (완당)선생의 영전에 바친다고 할 수 없다"는 겸사로 끝맺음을 하고 있지만, 청나라 문인 김성탄의 말처럼 책은 스스로 쓰고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인화와 장정은 물론, 정혜련과 같은 이를 있는 문인의 교정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완당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으로 돋보이는 대목이다.

김태준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존재의 암호를 해독하라

청춘은 정말 아름다운가?
청춘은 사실 어설피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이 아닌가. 젊음은 불확실함 그 자체다. 경제력도 없고 미래의 직장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아직은 부모 슬하의 자식이지만 앞으로 자신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가정적으로도 아주 어정쩡한 상태이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또는 가족 및 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괴롭고 괴로울 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목적지를 향해 내달린다. 가장 확실한 목적지는 돈이 보장되는 곳이다. 돈이 보장되는 쪽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곳엔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젊은이들에게 외모 또한 매우 중요하다. 매력적인 외모와 몸매로 가꾸기 위해 특히 젊은 여성들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인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지 돈이 있다면 얼마를 들여서라도 맛있는 외모를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한 노력은 가히 열광적이다. 인간의 삶에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이 있거나 한가?

종교가 철학자들 그리고 교훈적인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운운하지만, 기실 우리들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일상으로 느끼며 살고 있지 않은가. 말로는 삶의 의미와 참다운 목적을 앞세우지만, 사실 우리들 마음 속에서는 이미 그러한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어디에서 삶의 참다운 의미를 찾을 것인가를 스스로를 단져서 구한 이들이 바로 붓다와 예수이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향해서 구도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리고 19세기 전반의 키에르케고르, 20세기 전반에 크게 활약한 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 등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근본적 조건이 불안·절망·한계상황·일상성·우연성·무·부조리라고 통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주스러운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바로 그러한 조건 속에서 찾았다.

청춘이 아름답다면 그것은 단지 신체적 젊음 때문만이 아니다. 더 크게는 그들의 무한한 열정·모험심·투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모할 정도의 미래지향적 열정 한가운데서 겪는 그들의 아픔 때문이다.

크게 절망하는 자가 동시에 진리를 볼 수 있는 자이다. 인간 본래의 '한계상황'을 직시하고 그것과 대결함으로써 난파당할 것을 감행하는 자만이 존재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

가짜로 살지 않고 '참으로 사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삶의 방식이다. 현대와 같이 변화의 굴곡이 큰 시대일수록 자기의 내면에 삶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

21세기 지식인 사전

대안적 사상가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

펠릭스 가타리(72·Felix Guattari)는 정신분석학이 정지 운동가로서 철학자인 질 들뢰즈와 함께 '자본주의와 정신 분열'에 대해 논한 대안적 사상가로 알려져 있다.

1930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사회주의 단체에서 활약하는 등 마르크스 사상에 관심을 보였다.

1962년에는 프로이트 학파에 참여하는 등 정신분석학을 공부한 그는 들뢰즈와의 공저인 '안티오이디푸스'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을 결합시켜 새로운 차원의 급진적 정치를 모색했다. 하지만 가타리는 들뢰즈의 명성에 가려 부수적 인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그는 1977년 '분자혁명'을 펴내면서 독자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주목받게 되었다. '분자혁명'은 주체성 생산에 대한 가타리의 관심이 잘 반영된 책이다. 이를 통해 가타리는 주체와 객체, 개인과 구조 등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이분법적 사고를 와해시키며 마르크스주의를 포스트모더니즘에까지 접목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가타리의 분자혁명적인 사고는 80년대 이르러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에콜로지 운동'에도 확대되어 나타났다. 이는 그가 강조하던 주체성 생산이라는 문체와 결부되는 것으로 일관된 사상성을 보여주고 있다.

밀리미터파 연구 선두주자 황인석(전자공학) 교수를 만나

초고속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로 국내 연구 이끌어

본교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센터(소장=이진구·전자공학, 이하 MINT)에서 수행한 '초고속 무선통신 모듈 및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가 지난 3월 24일 한국과학재단 주최 '2002년도 30선 우수연구성과 인증'에 선정되었다.

이번 연구 과제 책임자인 전자공학과 황인석 교수를 만나 연구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연구의 핵심내용은,
= 1999년부터 2년간 연구한 '초고속 무선통신 모듈 및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는 미래의 주파수 자원인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동작하는 각종 부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핵심은 60GHz로 무선통신이 가능한 증폭기 등을 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요즘 무선단말기가 사용하는 주파수인 2.5~5GHz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로 60GHz 무선통신을 사용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초고속 무선통신 모듈·시스템 개발의 의의는,
= 그동안 50GHz 이상 대역에서의 연구는 각종 장비 부족과 아직 무르익지 않은 시장 상황으로 부족한 형편이었다. 때문에 이번 연구성과는 국내 밀리미터파 대역 무선 송수신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한층 앞당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60GHz로 무선통신이 가능한 기술 개발은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무선랜 서비스 속도와 비교해 매우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실현할 수 있어 60GHz 대역 무선랜 서비스 시장에서 국산부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기간 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 밀리미터파 대역 연구는 현재 본교 MINT 연구가 국내 연구 중에 가장 앞서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국내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학분야는 투자비용과 성과의 상관관계가 큰 편이지만 연구비용의 제약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 앞으로의 계획은,
= MINT에서는 앞으로 첨단 반도체 제작 기술 연구와 초고속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선단말기 기반기술 연구가 계속될 것이며, 무선통신뿐만 아니라 밀리미터파를 통한 지능형 차량 충돌 방지장치에 필요한 부품·설계 등도 연구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telleme@dongguk.edu

밀리미터파 대역
30~300GHz의 주파수 대역은 파장이 1~10 밀리미터(mm)이기 때문에 흔히 '밀리미터파 대역'이라고 불리며, 이는 마이크로파 보다 에너지가 낮아 주로 위성통신이나 군사용 통신 등에 사용돼 왔다.

상아탑의 주춧돌 교양교육, 바로서야 대학이 산다

‘학점 잘주는 쉬운 과목’에서 탈피해 제 역할 찾아야 할 때

교양교육은 학생들의 기초소양을 길러주고 폭넓은 학문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교육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교양교육은 학부제 시행과 함께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교 역시 교양교육 강화를 위해 96년도부터 개편을 단행해 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사 기획부는 현재 교양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교양교육은 대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교육과정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기초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양교육은 그 중요성과는 달리 학생들 사이에서 ‘수월한 과목’으로 여겨졌다.

■ 교양교육 개편 과정

그러나 학부제와 모집단위광역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대학들이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교 역시 95년까지 인문, 사회, 자연, 예술 4분야로 나뉘어져 있던 교양선택을 7개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교과목 수도 크게 확대하는 등 교양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했다. 또한 96년 학부제 시행 이후 교양교육을 전면 재편성했다. 전공결정 전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70여 개였던 교양선택을 140여 개로 두 배 증설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학생들이 순수학문을 기피할 것을 우려해 7개 영역에서 각각 3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편된 교과과정은 99학년도까지 이어지다가 2000학년도 모집단위광역화의 실시로 다시 한번 새 단장을 하게 된다.

7개 영역의 교양을 대폭 정리해 기존의 ‘철학과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2영역 인문과학으로 ‘기초과학’과 ‘자연의 이해와 기술’을 4영역 자연과학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6영역 일반교양이 추가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학개론, 경제원론 등의 기초전공과정이 교양으로 바뀌면서 대학지정공통과목이 필요하게 됐다. 기초전공은 고차적 지식을 습득하기에 앞서 필수적 과정이지만 이것이 교양선택과정으로 바뀌면서 이수해야 할 강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대학지정공통과목의 시행으로 다른 단과대 학생들도 사회화개론이나 경영학원론 등과 같은 타 전공 기초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학생수가 많아지고 전공 이외의 학생

들이 수강하면서 난이도를 낮추는 바람에 수업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 현재 교양교육의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양교육은 많은 개편과 보완작업을 거쳤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사는 서울캠프 300명, 경주캠프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겨지는 한 강좌 당 학생 수에 대한 질문은 전체의 80.9%가 학생수가 많아 수업진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적정인원이 30~50명(48.6%)인 것에 비해 실제로 한 강의 당 수강인원이 100명을 넘기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폐강 기준 또한 40명으로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문과대 학생회(회장=최경희·국문3)는 “40명의 학생으로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폐강기준 재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참조 <표1>

강의 내용에 대해서도 77.8%의 학생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는 △심층적이지 못하고 겉핥기식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0.68%로 가장 많았고 △강사의 불성실이 19.2%, △강의내용이 강의계획서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가 14.3%로 그 뒤를 이었다. 본교의 경우 전체 교양강좌의 강사 중 전임교수의 비율이 20%에 불과해 이 또한 강의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중 하나가 되고 있다. 참조 <표2>

특히 이 항목에서 야간강좌 학생들이 전체 35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양교육 내용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는 야간강좌의 수업시간 5분 결손, 10교시 교양필수 집중편성 등으로 인한 야간강좌 학생들의 불만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양필수가 10교시에 집중된 결과 야간강좌 학생들의 강의 선택의 폭이 크게 제한 됐다. 이에 대해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이상현·경영3)는 ‘야간강좌 기초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교양과목 수강신청 시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에 37.1%의 학생이 ‘나의 강의 시간표에 맞는 강의 중심으로’에 응답했고 그 뒤로 ‘학점을 잘 주는 교수가 강의하는 수업으로’(21.6%), ‘전공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과목으로’(19.2%), ‘교양과목의 실용성을 고려해서’(17.4%)가 차지했다. 많은 학생들이 강의의 내용보다는 강의시간표나 학점에 따라 과목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조 <표3>

이와 관련해 교양교육 운영실의 황의돈 과장은 “교양교육은 학점을 잘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라며 “학점에 얽매이기보다 교양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교양과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사의 설문조사 외에도 지난 학기 교양강의에 대해 학생상담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양선택 6개 영역 중 6영역인 일반교양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표4>

학년별로는 1학년이 45.2%, 2학년이 37.0%, 3학년이 35.2%, 4학년이 22.9%로 학년이 낮을수록 일반교양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양과목 개설에 있어 가장 중시해야 할 측면에 대해 43.0%가 인성의 개발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0.7%는 실용성을 지적했다.

1학년의 경우 38.2%가 실용성을 꼽은 것에 반해 4학년의 51.5%는 인성의 개발을 선택해 대조를 이루었다. 이 결과는 위의 일반교양에 대한 학년별 만족도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학년이 낮을수록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강좌를 원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인성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교의 교양교육과정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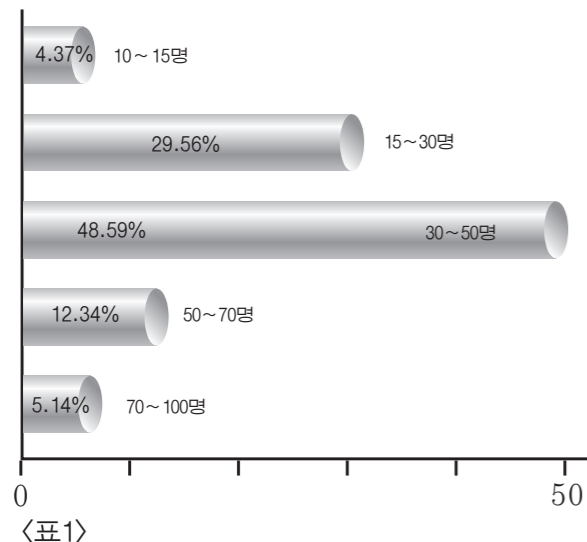


본사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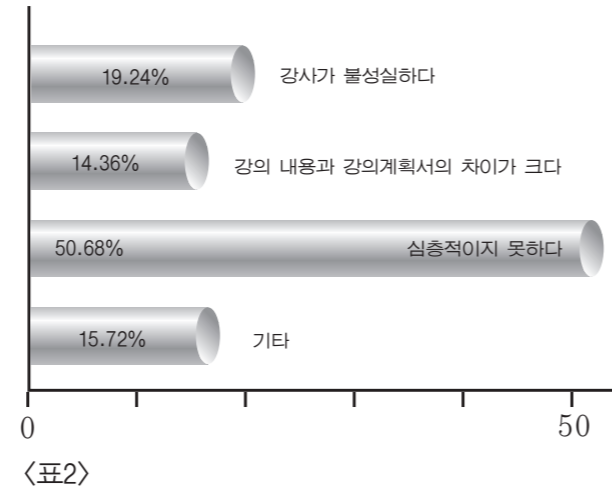
다.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교양교육, ‘수월한 과목’이 아닌 대학교육의 주춧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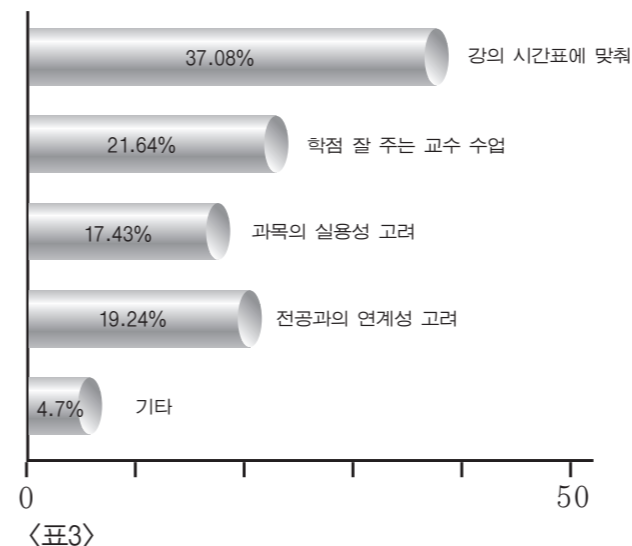
◆한 강좌당 적정 수강인원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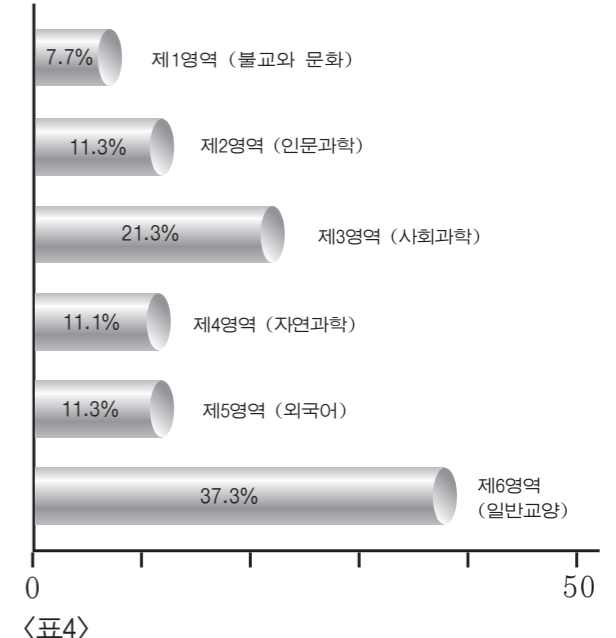
◆교양과목 강의내용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교양과목 수강신청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수강했던 교양과목중 가장 만족했던 영역은?



우리가 만드는 제7영역

본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마지막 문항 ‘개설되었으면 하는 교양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해보았다.

스포츠댄스의 이해
패션학 입문
메이크업과 코디네이션
플래쉬 애니메이션
포토샵 입문
컴퓨터 게임 원론
RC모형제작의 이론과 실제
음향학의 이해
오락과 레크리에이션
글프학 입문

실용음악
만화원론
현대음악의 이해
세계여행론
단전호흡의 실제
한의학의 민가요법
일러스트의 세계

뇌호흡
심리학
기의 세계
연론과 여론매체

볼링의 기초
꽃꽂이의 세계
당구의 기술
역술과 세계관
수화의 이해
천문학과 우주
결혼과 가족
미술입문

마술의 세계
남성학의 이해
러시아어
사물놀이와 우리가락
수지침의 실제
도자기 제작 입문

실용댄스
힙합론
살사댄스
바둑학 개론
카테일 입문
십자수의 기초

교양교육운영실장 구승희(윤리문화학) 교수를 만나

“운영의 전문화 통해 교양교육 강화시켜야”



본교는 올해 3월 교양과목 강좌의 문제점 해결과 개선을 위해 교양교육운영실을 신설하였다. 이에 교양교육운영실장인 구승희(윤리문화학) 교수를 만나 교양교육운영실의 신설 의의와 현재 본교 교양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교양교육운영실을 신설하게된 계기와 의의는.
= 본교는 1999년 말 교양교육 강화를 위해 '교양교육운영 연구위원회'를 창립했다. 여기서 논의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양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깨달아 교양교육운영실이 신설된 것이다. 따라서 관련 전공학과가 도맡아 했던 교양교육에 대한 운영 전반

을 교양교육운영실이 맡게됐다. 이를 통해 시간 소홀히 취급됐던 경향이 있던 교양교육의 질, 개설과 폐지, 교육성과 등의 운영이 전문화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 교양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본교 교양교육은 전공 기초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교양교육은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하거나 전공에 관련한 전문적 시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또는 품성을 바르게 닦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의 청화대학의 경우 공대생들도 교전 백권을 읽어야 졸업이 가능한데 이는 교양과목이 전공에 따른 부수적인 학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이다.

- 학부제의 도입 이후 늘어난 교양교육의 문제점은.
= 우선 전임교수에 의한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올해 1학기 전체 교양강좌에서 전임교수가 담당할 강좌의 비율은 약 20%에 불과하다. 이는 수업에 대한 책임감 부족현상을 낳아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본교는 1학기에 693개의 교양강좌가 개설돼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17명당 1강좌, 교양과목의 주요대상인 1, 2학년생을 기준으로 3명당 1강좌로 학생수에 대한 강좌수는 많은 편이다. 하지만 동일 강좌명의 강좌수가 너무 많아 다양성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공대를 비롯한 몇몇 단과대의 경우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양학점이 과중해 '학점만 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계획중인 사업이 있다면.
= 먼저 '교양교육운영 개선방안 연구'라는 사업 계획안을 준비중인데 이것은 6개 영역으로 나뉜 현 교양교육을 재편성하는 것이다.

재편성 하고자 하는 영역은 △인성형양을 위한 인문교양영역 △비판적 사고 기르기 영역 △의사소통·말하기 능력 강화 영역 △컴퓨터·외국어를 포함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영역 등으로 구분하며 이는 강좌를 통해 개발되는 능력의 성향에 따라 나눈 것이다.

또한 '학습성과기준제' 정립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이는 교수 또는 강사가 어떠한 강좌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학습능력평가 기준으로 정하고 그것을 강의계획서에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것인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강의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현재 시행중인 '교양강좌 책임교수제'에 있어 책임교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전공관련 교양과목들을 전공으로 전환해 새로운 교양과목을 개설할 계획도 있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교양, 그 이상의 교양 만들기

타대학 사례 바탕으로 적합한 제도 도입·의견 수렴 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교 교양 수업 진행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한 강좌 당 수강인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물론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수업은 15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달리 수업 여건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전안대는 수강최소인원 제한제도를 두고 한 과목 당 수강인원이 60명을 넘는 경우는 분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 강의 당 학생 수가 많아 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업 진행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교양 수업의 폐강 기준 역시 15명 미만으로 규정해 폐강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또한 일반적으로 40여명 이상이 수강신청을 해야 강의가 이뤄지는 본교와 차이를 보인다.

사실상 강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본교 상황에서 수강인원 제한 제도를 무조건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공간부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사이버강의를 확대해 교양과목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거나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이후에 강좌별 성격에 따른 수강인원 제한 기준을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이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교양교육 평가에서 최우수대학 중 하나로 선정된 한양대는 다양한 제도 도입과 새로운 시도로 교양교과 내용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우선 학습수준이나 전공에 따라 교양 수업을 차별적으로 운영해 수요자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양필수 과목인 컴퓨터 수업의 경우, 인문계열은 'PC통신과 인터넷', 자연계열은 '컴퓨터프로그래밍응용', 음악대학은 '컴퓨터음악실습'으로 계열 성격에 따라 다른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해' 등 일부 과목은 유명외부인사를 초청, 각기 다양한 주제로 옴니버스 방식의 강의 진행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교양 수업의 질적 향상 차원에서 전임교수가 교양강좌 1개 이상을 맡도록 권장하고 있고, 원로교수가 교양과목을 담당할 경우 기준수업시간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다.

본교는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 비율이 20%에 불과하다. 반면 이주대, 이화여대, 천안대는 교양과목의 60% 이상이 전임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수업이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교양교육 평가 기준 중 하나가 전임교수 비중이었던 만큼 수업내용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전임교수의 비율은 중요한 척도다. 이런 만큼 본교도 전임교수가 교양과목을 담당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교 교양과목의 또다른 문제점은 강좌의 특이성이나 종류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신설된 과목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대변화에 따른 변화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반해 2001학년도 교양교육 부문 최우수 평가를 받은 한양대, 이화여대와 지난해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뽑힌 동의대의 경우 강좌의 다양성과 변화를 위한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양대에서는 최근 몇 년 간 신설된 교양과목이 '이미지 메이킹과 코디네이션' '컴퓨터음악' '분노와 자기관리' 등 30여 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 교무처 심대진 과장은 "매학기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양과목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신규교양과목을 개발하는 교수에게 업적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과목 신설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는 교양선택 영역 역시 사회봉사, 외국어, 국제이해, 문학·예술 영역 등 9개의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와 글로벌 에티켓' '쉽게 듣는 서양오페라' '프랑스 시와 상송' 등 강좌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창업과 기업가 정신' '금융IT' '발과 현대생활' 등 실용적인 강좌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 점은 본교 학생들이 교양과목 부문에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또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여성'이라는 특정 주제로 '여성과 직업' '여성과 인터넷 비즈니스' '여성과 인터넷 기술'이라는 3학기 강좌를 마련해 여학

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도 개설해 놓고 있는 부분이다.

1학년을 대상으로 세미나식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이화여대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세미나 식 교양과목은 '여성의 불경험의 종교적 의미찾기' '영상 소설로 본 유럽문화' '신촌의 대학문화' 등 다양한 강의 주제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이화여대 김성원 교무처장은 "세미나 교양은 10명 이내의 학생들로만 이뤄지는 소단위 수업이며 강의 장소나 진행 방식에 제한이 없어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동의대의 경우도 교양과목의 다양화와 변화를 위한 제도인 '일몰제(Sunset Law)'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일몰제'란 교양과목의 개설 허용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는 제도로 사회변화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양교육운영실 황의돈 과장은 "교양교육은 기초지식 수양과 인성형양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단순히 학생들의 관심사나 오락적 측면만을 위해 모든 교양과목을 실용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영역에 비해 비교적 실용적인 과목 위주로 편성된 6영역 일반선택의 경우 변화를 시도해 볼 만하다. 매학기 신설하는 과목을 일정 정도 늘리거나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업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한양대는 수강신청 시 제한 인원 초과로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처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 중 20명 이상이 수강을 희망할 경우 별도로 강좌를 개설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동의대는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등 국가 공인 IT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컴퓨터 활용 등 교양과목 수강을 인정해 학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까지 교양교육 운영에 있어 타대학의 여러 제도들을 살펴본다. 본교는 이러한 타대학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에 적합한 제도와 프로그램은 취사선택해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자체평가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교양 관련 제도를 한눈에!

BSM (Basic Sciences and Mathematics)

공과대와 정보산업대 학생들에게 기초 과학 및 수학 교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2000학년도부터 공학교육인증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의 하나로 적용된 이 제도로 인해 본교는 국내 최초로 한국공학 교육인증원(ABEEK)의 인증 대상 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학문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과대, 정보산업대 학생들이 교양선택부문인 자연과학의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영역에서 각각 2과목 이상씩 수강하여 총 36학점을 이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과대와 정보산업대 학생들은 교양필수 2학점, 교양선택 중 자연과학영역에서만 BSM 36학점을 이수해야 함을 뜻한다. 이는 대학별지정공통과목이 대체로 9

학점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서라도 공과대와 정보산업대를 제외한 다른 단과대가 교양필수과목이 10학점, 최소 교양선택과목이 15학점인 것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학부제 실시 이후 교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학생들의 전공공부 기피와 이에 따른 전반적 수준 하락으로 인해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한 데서 착안했다. 하지만 애초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이론 중심의 교과목을 탈피해 산업계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학교의 적극적 방침이라고 본다면,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BSM에 대한 기업체들의 평가에 대해 객관적 평가작업 또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점 제한제

모든 학생들이 교양의 각 영역별 교과목을 이수함에 있어 각 대학 및 학부별로 정해진 교양교육과정을 포함하여 42학점 이하로 이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제6영역인 일반교양에서 4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학점 제한제는 교양과목이 다양해지고 수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졸업할 때 이수해야 하는 전공학점이 줄어들어 비교적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교양과목을 지나치게 많이 수강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영어 패스제

2001학년도 신입생(불교대는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일정 수준의 영어점수를 받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TOEFL, TOEIC, TEPS 과정중 한가지 이상 취득해야 한다. 비슷한 예로 서울대에서는 교양필수 과목인 영어관련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정해진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만 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영어 패스제는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을 앞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각 단과별 점수 제한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 | 불교대 | 문과대 | 이과대 | 법과대 | 사과대 | 경영대 |
|-------|-----|----------|-----|-----|-----|-----|
| TOEFL | 487 | 505 | 512 | 533 | 522 | 533 |
| TOEIC | 550 | 600(700) | 620 | 680 | 650 | 680 |
| TEPS | 433 | 483 | 505 | 575 | 539 | 575 |

| | 생자대 | 공과대 | 정산대 | 사범대 | 예술대 | 야간강좌 |
|-------|-----|-----|-----|-----|-----|------|
| TOEFL | 505 | 522 | 533 | 505 | 533 | 미시행 |
| TOEIC | 600 | 650 | 680 | 600 | 680 | " |
| TEPS | 483 | 539 | 575 | 483 | 575 | " |

* 영어영문학 전공자는 700점 이상
*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제외, 예술대는 영화영상 전공자만 적용

성적 차별제

교양과목에 한해 1, 2학년과 3, 4학년을 분리하여 상대평가 하는 것으로 200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전공과목과 같이 성적평가 시 모든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상대평가 하여 고학년에 높은 점수가 집중되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적 차별제는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에 유리한 고학년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1, 2학년을 위해 개설된 교양과목을 3, 4학년 때 듣는 것을 방지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난 2년 동안 3, 4학년의 수강과목 분석 결과 학점을 따기 어려운 전공과목보다 비교적 쉽게 학점을 딸 수 있는 교양과목 이수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실은 이러한 제도가 등장하게 된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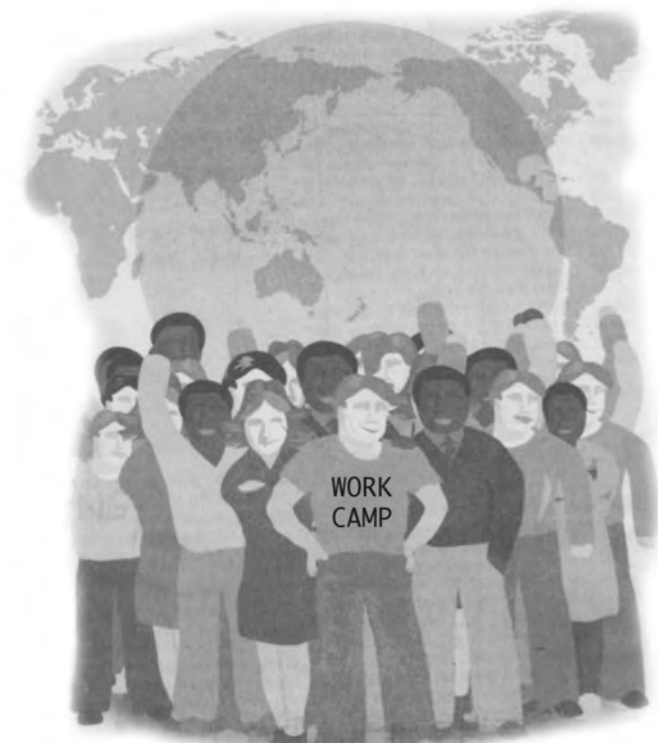
이제는 학생들 스스로가 점수를 따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공을 기피하기 보다 1, 2학년 때에는 교양위주의 폭넓은 학문을 접하고, 3, 4학년 때에는 전공이나 복수전공 위주의 과목을 수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획부
special@dongguk.edu



세계 대학생들과 물어본 적 있나요?

배낭여행·자원봉사 결합한 국제워크캠프 ... 색다른 문화소통 기회



모두들 중간고사를 보는 데 여념이 없었던 지난 2주, 김은수(국제통상3) 양은 조금 특별한 이유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이번 여름 방학에 친구들과 함께 떠나기로 한 프랑스 여행 준비 때문이었다.

워크캠프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젊은이 20명 가량이 한 팀을 이뤄 약 3주간 일정한 지역에 머물며 펼치는 자원봉사활동이다. 국내엔 국제워크캠프기구, 유네스코 등의 NGO가 국제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간 이러한 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대학생들이 급증했다.

사회가 비교적 안정되면서 봉사에 대한 열기가 높아진 한편, 배낭여행에는 싫증난 이들이 많아 국제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국제자원봉사라고 하면 흔히 빈민촌으로 떠나는 것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제워크캠프는 빈민촌 뿐 아니라 소위 '잘 산다'는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열리고 있다. 워크캠프에서 의미하는 봉사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고된 일보다는 나무심기나 벽화그리기, 페인트칠하기, 지역주민들의 일 돕기 등과 같은 비교적 일상적인 일들이 봉사활동의 주가 되기도 한다.

또한 워크캠프에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물론 팀내 구성원들간의 다양한 문화체험도 중요하다. 몇몇 워크캠프 전문단체들은 이러한 이유로 같은 국적의 구성원을 셋 이상 두지 않고 있다.

지난 해 워크캠프를 다녀온 어느 참가자는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언어문제를 비롯한 몇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며 "그 과정에서 열린

생각을 갖게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는 그러한 과정을 "배낭여행에서 느끼지 못하는 짜릿함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문화적 충격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즐거움은 소위 '국제적 마인드, 세계시민정신을 기른다'는 워크캠프의 모토와도 잘 들어맞는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캠프를 저렴한 단기 여행으로 인식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국제워크캠프기구 김용환 간사는 "캠프 공용어가 영어이긴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소화한 영어들을 접하다보면 실제 미국식 영어능력향상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영어도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낭을 둘러메고 외국의 거리를 누비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은 가져보는 꿈이다. 일탈과 자유의 코드로 읽혀진 배낭여행이 이제 해외여행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워크캠프는 배낭여행과는 달리 생생하고 '의미있는' 문화체험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캠프 마지막 날 2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서로 켜고 울었던 순간은 에펠탑 앞에서 홀로 기념사진을 찍는 배낭여행자에게겐 주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클릭! - 댄스샤워(www.danceshower.com)



써 보는 '컬러', 댄스계에서 유명한 인물을 만나보는 '파워인터뷰',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을 알아보는 '클럽탐방' 등 힙합·파퓰러, 라틴·재즈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춤들에 대한 알찬 콘텐츠와 정보들이 가득하다. 클릭 한 번으로 춤에 대한 이론의 기초부터 이론과 본격적인 실제 활동에 이르기까지의 춤에 대한 온갖 종류의 정보들을 섭렵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로의 주말, 땅거미가 깔릴 즈음이면 곳곳의 빈터마다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진다. 저마다의 습씨를 자랑하며 모인 젊은이들이 펼치는 춤의 향연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춤추는 젊은이들은 비단 대학로 뿐 아니라 각종 소풍물이나 대학가의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생동하는 젊음의 열기를 과시한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이런 열기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댄스전문 인터넷 방송국 '댄스샤워(www.danceshower.com)'에 가면 이런 젊음들을 느끼고 그 열기에 합류할 수도 있다.

댄스샤워에는 춤과 관련된 용어정보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랩을 배우고 함께 가사를

리기까지의 춤에 대한 온갖 종류의 정보들을 섭렵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댄스쿨'을 열어 전문기법의 강의를 통해 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들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온라인만의 특성을 살린 코너도 눈에 띈다.

춤을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가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문화공유의 장, 댄스샤워. 지나친 상업성을 배제하고 회원들간 소통기능을 더욱 강조해 캐치프레이즈 그대로 '춤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가길 기대해본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문화단신

서울공연예술제

지난 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무용제와 서울연극제를 통합한 '2002 서울공연예술제'가 세종문화회관과 국립극장,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을 비롯해 대학로 일대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먼저 무용부문은 '레퍼토리 공연' '재즈댄스 페스티벌' '광화문댄스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연극부문은 '공식참가작품' '해외초청작품' '자유참가작품'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밖에도 축제기간 중 15일에는 공연예술제에 대해 평가하고 전망하는 세미나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축제 집행위원회는 축제 관련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매향리 음악회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참여연대 등이 후원하는 '자유와 평화 - 매향리 음악회'가 오는 8일 서울 정동 성공회 대성당에서 열린다.

총 2부로 진행되는 이 음악회는 한국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지닌 매향리의 이야기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1부에서는 김연준이 '청산에 살리라'를, 백경환이 '초혼'을 부를 예정이며 2부에서는 실내악단 화음의 '현을 위한 아리랑' 연주와 매향리 영상물 상영이 이어져 많은 볼거리를 제시할 것이다.

“오늘은 미국이 우리 장난감”

‘美, 쳐보자’, 운동권과 네티즌이 함께 만든 문화한마당

“만약 당신이 국어사전을 편찬한다면 새로 추가할 신조어 1순위로 무엇을 넣겠습니까?”

지난 2월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의 편파판정이 없었더라면 그 영어(?)는 아마도 '영삼스럽다'나 '대중스러움' '회참맛다'가 차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이후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F-15K 선정 압박으로 잇따라 반미감정은 '오노스럽다'를 1순위로 꼽지 않을까. 정정당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도 뻔뻔스러운 이들을 일컬으며 말이다.

대한네티즌협회가 지난 3, 4일 이틀동안 경희대와 명동 일대에서 기획한 'Oh! No~U.S.A 페스티벌'은 이러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美, 쳐보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이 행사는 한민족네티즌협회, 인터넷가계모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과 같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천도교청년회 등 신분이나 사상에 상관없이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해 더욱 의미있다.

먼저 홍보·거리 전시회에서는 미군의 만행을 알리는 사진전을 비롯해 미국상품배출운동, '미국(美國)'의 '美'자를 '米'자로 바꾸기 캠페인 등으로 미국이 더 이상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이키,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의 미국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상품들을 모형물과 게임으로 변용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아 두기도 했다.

특히 행사장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고물 F-15K 자전거나 오노 얼굴이 그려진 화장지는 특목 튀는 아이디어로 많은 이들에게 속시원한 웃음을 전해주었다. 또한 참가신청을 한 학생들의 만담, 퍼포먼스, 락밴드 공연이 선보인 '빛광 스테이지'는 일반인들의 미국에 대한 거침없는 생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이어 열린 '빛광 스테이지'는 각설이 타령으로 한국현대사를 그럴듯하게 정리하며 시작했다. 이 무대에서는 'Fucking U.S.A'와 '종이비행기' 등의 민중가요가 관련 영상자료와 함께 펼쳐졌으며, 민중가수와 대중가수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그동안 운동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반미운동이 보다 넓고 다양한 계층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구호만 외치며 사회적 성격만을 내세웠던 것이 미국상품배출운동처럼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네티즌협의회 회장 이오린(24) 씨는

“미국의 부당함을 알리며 하나의 장터처럼 모두가 즐기는 행사”라며 “이벤트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한다.

반미라는 무거운 주제를 젊은이들의 넘치는 끼로 잘 만들어 낸 'Oh! No~U.S.A 페스티벌'.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페스티벌에서 보고 들은 것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젊은이부터 나서야 하는 일이 아닐까.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한 학생이 성조기 위에 그려진 F-15K를 향해 화살을 던지고 있다.

2002 일본 삿포로학원대학교 학생 학술문화연수 시행

1. 교류대학 : 일본 삿포로학원대학교(札幌学院大学 · Sapporo Gakuin University)
2. 연수개요

| 구분 | 연수기간 | 연수주관대학 | 연수인원 | 비고 |
|----|-------------------------------|----------|------|----------|
| 파견 | 2002. 7. 1(월) ~ 7. 7(일) (1주) | 삿포로학원대학교 | 10명 | 인솔자 추후결정 |
| 초청 | 2002. 9. 9(월) ~ 9. 15(일) (1주) | 동국대학교 | 10명 | " |

3. 주요 연수내용 (세부 연수프로그램 추후 통보)
 - 가. 영어를 주된 사용언어 하는 학생교류
 - 나. 일정기간 동안의 홈스테이(Homestay)를 통한 각국의 실생활 체험
 - 다. 양 대학의 정규수업 참가
 - 라. 양국 명소 견학 등의 문화탐방
4. 신청자격
 - 가. 현재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3학기~5학기 재학생으로 누계평점평균이 3.0 이상이고
 - 나. 영어회화가 가능하며
 - 다. 본교측 초청서(9. 9(월) ~ 9. 15(일))Homestay 제공 등 초청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자
5. 연수경비(파견시) : 연수생 자비부담으로 하되, 1인당 ₩300,000 학교지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 왕복항공료 | ₩ 505,000 | 그림요금 적용시 |
| 숙식비 | ₩ 50,000 | 숙박 : 대학기숙사 및 홈스테이 |
| 개인경비 | ₩ 200,000 | 일부 현지 소요경비 |
| 소계 | ₩ 755,000 | |
| | - ₩ 300,000 | * 연수생 1인당 학교 지원액 |
| 실질부담액 | ₩ 455,000 | |

- * 상기 금액은 환율이나 기타사정 등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6. 신청서류
 - 가. 해외 자매대학 학술문화연수 지원서(소정양식) 1부
 - 나.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7. 선발방식 :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 확정
- 8. 전형일정
 - 가. 원서교부·접수 : 2002. 4. 22(월) ~ 5. 7(화), 국제교류실
 - 나. 면접일시·장소 : 2002. 5. 10(금) 14:00 ~ 국제교류실
- * 기타 사항은 국제교류실 (본관 2층, ☎ 2260-3876)로 문의 바랍니다.

연 구 처

2002 동국해외탐방장학생 선발

2002 '동국해외탐방장학'은 학생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고, 현장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우수인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탐방대상
 - 가. 해외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노하우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각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대학, 기업, 사회단체 등
 - 나. 탐방지역은 1개 대학으로 한정함.
2. 탐방조건
 - 가. 탐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서와 탐방 및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망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테마
3. 탐방지역
 - 가. 본교 재학생(경주캠퍼스 포함, 휴학생 제외)으로서 전학규정에 따라 직전학기 17학점 이상 취득, 평균평점 3.0이상인 자(경영대, 불교대 15학점)
 - 나.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 다. 탐방활동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학생 1명 이상 참여
4. 탐방일정
 - 가. 탐방기간(대학) 재학생 3명으로 한다. (탐방구성 초과 및 추후 명단 교체 불가)
5. 선발인원
 - 가. 15명(15팀 X 3명), 계획서가 미비할 경우 제외될 수 있음.
6. 탐방국가 및 선발인원
 - 가. 미국(남미포함) 5명
 - 나. 유럽(호주포함) 3명
 - 다. 러시아 1명
 - 라. 일본 3명
 - 마. 중국·아시아 3명
7. 탐방기간 : 2주(14일)
 - 가. 시기는 7월 8일(월)부터 8월 23일(금) 사이에 자율적으로 결정
8. 탐방비 지원내역 : 왕복항공권(제1목적지) 및 소정의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지원내역(인기준)
 - 가. 미국(남미포함) : 50만원
 - 나. 유럽(호주포함) : 50만원
 - 다. 러시아 : 30만원
 - 라. 일본 : 40만원
 - 마. 중국·아시아 : 20만원
 - 바. 여권, 비자 등 관련서류는 개인부담 준비
9. 제출서류
 - 가. 탐방지원서(소정양식) :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나. 탐방계획서 : A4용지 20매 이상
 - 가. 탐방분야 : 목적
 - 나. 탐방활동 : 계획
 - 다. 탐방활동의 사회적 기여 또는 기대효과
 - 라. 인터뷰중계 계획서
 - 다. 학원지도교수 탐방계획 지도 확인서
10. 응모기간 및 접수처 : 2002. 5. 13(월) ~ 14(화), 학생복지실(본관 3층)
11. 선발방식 :
 - 가. 서류심사, 2차 : 면접
 - 나. 각 국가별로 팀을 선발하며, 계획서가 미비한 경우 제외함.
12. 선발결과 발표
 - 가. 2002년 5월 31일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13. 탐방비 인의사항
 - 가. 탐방결과보고서 제출(탐방 종료후 2주내) - 여권 사본 1부
 - 나. 제출중 인터넷 중계 - 각종 자료, 간행물, 사진 등 포함.
14. 우수탐방팀 시상
 - 가. 탐방결과보고서 심사를 통해 우수 탐방팀 선발, 시상
 - 나. 상 : 1팀(장학금 - 등록금 50%)
 - 다. 우수상 : 1팀(장학금 - 등록금 30%)

학 생 처

200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공고

1. 개설대상 교과목
 - 가. 2002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 및 2학기 개설예정 교과목 중 강좌개설 요건 충족 교과목 (단, 실형·심습 및 사이버강좌 제외)
2. 수업일정
 - 가. 2002. 6. 17(월) ~ 2002. 7. 10(수) : 주 4일 수업 (월·화·목·금요일, 15일강 : 단, 7. 10(수) 수업실시)
 - 나. 수업과 글드포목은 주 5일 수업(월 ~ 금, 8일강)
 - 다. 1(월) ~ 10(수)
 - 다. 신사의 생활(2박 3일) : 7. 11(목) ~ 13(토)
3. 강진개설 기준인원
 - 가. 전공 및 교외교과목 : 7명 이상
 - 나. 교양교과목 : 10명 이상
4. 수강지역 및 신청학기
 - 가. 수강지역 : 2002학년도 1학기 재학생
 - 나. 신청학기 : 6학점 이내
5. 성적처리
 -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 반영되며, 장학금 선발 및 학사징계 등 정규학기 학점취득과는 구별됨
 - 나.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공, 복수(연계)전공 및 전과 결정시 반영됨.
 - 다.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 라. 재수강을 신청한 학생들은 재수강신청원(홈페이지-학사행정-양식)함에 출력가능)을 반드시 소속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함.
6. 수강신청
 - 가. 기간 : 2002. 5. 14(화) ~ 5. 16(목), 3일간
 - 나. 수강신청 시간 및 장소
 - (1) 서울캠퍼스
 - (가) 시간 : 5. 14(화) 오전 09:00부터 5. 16(목) 24:00까지
 - (나) 장소 : 교내 자유실습실(아래의 자유실습실 현황 참조)
 - (2) 경주캠퍼스 : 경주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실에서 신청서로 접수
 - 다. 수강신청 방법
 - 가. 수강신청기간내에 교내PC실이나 외부에서 접속하여 수강신청 가능
 - 나. 자세한 사항은 2002학년도 1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 7쪽 참조
7. 수강신청 일정
 - 가. 기간 : 2002. 5. 21(화) ~ 5. 22(수), 2일간
 - 나. 제 한 : 최초 수강신청 후 폐강, 시간중복의 사유 발생시에 한하여 정지 가능
8. 수강신청 장소(자유실습실 현황)
9. 개설대상 교과목 및 수업시간 확정표표 : 2002. 5. 24(금) 예정

| 건물명 | 실습실명 | 개방시간 |
|-------------|-----------|---------------|
| 명진관 2층 | A2 | 08:30 ~ 22:30 |
| 동국관 M동 1층 | Cyberland | 08:30 ~ 22:30 |
| 동국관 M동 5층 | BSC7 | 08:30 ~ 22:30 |
| 정보문화관 P동 5층 | ESC4 | 08:30 ~ 22:30 |
| 정보문화관 P동 2층 | ESC5 | 08:30 ~ 22:30 |
| 하림관 3층 | JE | 08:30 ~ 22:30 |
| 중앙도서관 1층 | 정보검색실 | 09:00 ~ 17:00 |
| 해화관 2층 | CAMPUS# | 09:00 ~ 22:00 |
10. 수업료 납부
 - 가. 기간 : 2002. 5. 28(화) ~ 5. 30(목), 3일간
 - 나. 방 법 : 학교 홈페이지에서 수업료 납부고지서 발급 받은 후 제일은행(전 지점)에 납부
 - 다. 유의사항 : 수업료 미납으로 수강신청이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교 무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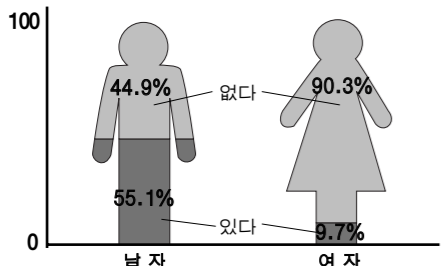
♀ 너 어느 행'성'에서 왔니? ♂

세상의 반은 남성, 그리고 반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인구 수에 따른 비율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트랜스젠더와 관련, '제3의 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사회적·생물학적인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들 남성과 여성, 양성(性)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왔지만, 성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함께 한 시·공간이 무색할 정도로 다르다는 것이 그간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렇다면 시대의 지성이라는 대학인들, 그 중에서도 같은 동안을 누비며 생활하는 본교생들의 성의식은 무엇이 같으며, 어떻게 다를까. 본교 서울캠퍼스 여학생실(실장=이혜은·지리교육)은 지난해 11월 재학생 중 남학생 250명, 여학생 350명 등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성경험 △혼전순결 △학내 성폭력 △성지식 등에 대한 것으로, 성별에 따라 응답에 편이한 양상을 드러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본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교생들의 남녀에 따른 성의식 차이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먼저 성경험, 즉 성교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남학생 응답자 중 44.9%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학생은 9.7%가 같은 응답을 했다.

■ 성경험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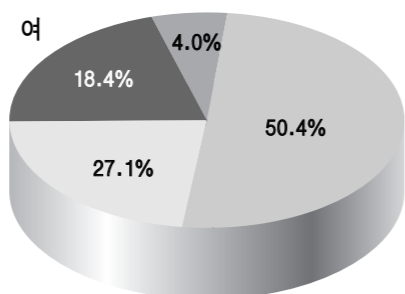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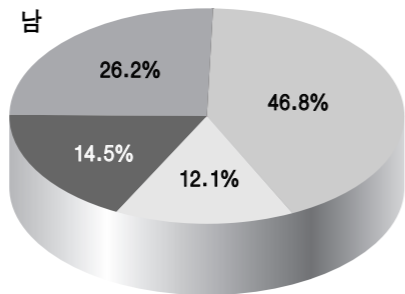


또한 혼전순결에 대한 질문에는 '결혼과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관없다'고 응답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46.8%와 50.4%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합의만 이루어지면 상관없다'고 답변한 남학생은 26.2%, 여학생은 4.0%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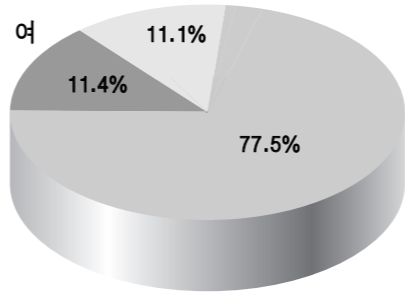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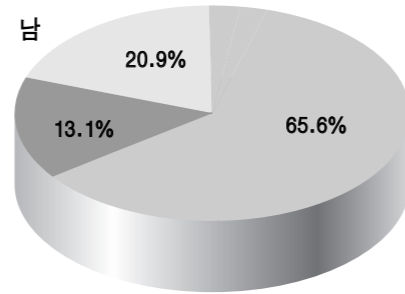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결혼을 앞둔 상대 성교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남학생 34.0%, 여학생 22.5%가 '관계를 정리한다'거나 '기타(결혼 연기 등...)' 등의 항목으로 대답해 남학생들의 성경험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 혼전 순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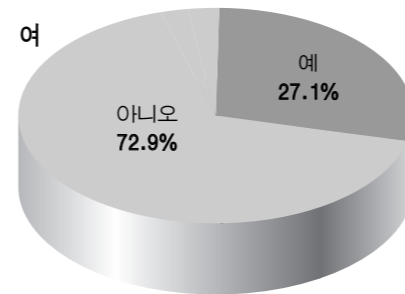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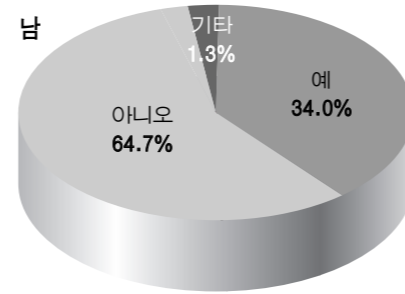
■ 결혼 상대자가 성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내 성폭력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성폭력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 남학생이 2.0%, 여학생이 4.6%로 응답해 여학생이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가해자는 남학생의 40.0%와 여학생의 56.3%가 '선배'라고 답변해 성폭력이 선배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을 시사했다.

그리고 남녀 모두 학내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공개적으로 밝힐 것인가에 대해 각각 64.7%와 72.9%가 밝히지 않는다고 답변해 성폭력경험 사실을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 성폭력을 당하면 공론화 하시겠습니까?



남녀 4:4 상황인터뷰

화성에서 온 동돌이, 금성에서 온 동순이

지구의 남성, 여성이 자기 다른 성(性)에서 온 사실을 잊어버렸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는 어디서든 갈등을 불러오지만 여성과 남성사이에서 그것은 더욱 특별하다. 터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동안 '뒤에서만 끼리끼리' 해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차로(사과대2), 김성기(사과대2), 이현상(신방3), 박태원(사회3) 군과 김경애(컴공3), 김효숙(컴공3), 이유영(컴공3), 박진영(멀티미디어공3) 양 등 동대의 남성, 여성도 역시 자기 다른 성(性)출신들이다.

이들에서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공격적인 자리에선 함부로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같은 질문을 받은 동대 안의 화성인들과 금성인들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 내가 포르노를 보다가 들켰다면, 혹은 상대방

이 포르노를 보다가 들켰다면.
= 화성(남) : 포르노를 보는 것은 취향의 문제다. 만약 여자친구에게 들킨다면 참피하긴 하겠지만 크게 부끄러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들리기 전에 먼저 포르노를 본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릴 것 같다.
= 금성(여) : (크게 웃은 뒤) 포르노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내게 들킨다면 남자를 대부분이 본다는 사실은 알고 있기에 애교있게 살짝 눈치준 다음 모르는 척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포르노를 보다가 들기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웃음).

-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 화성(남) : 그때마다 돈 있는 사람이 내는데, 되도록이면 밥은 내가 사고 술은 상대방이 사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편이다. 하지만 소개팅은 조금 다르다. 아직도 많은 여자들이 소개팅에서

는 남자가 모두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금성(여) : 돈 있는 사람이 내면 된다고 생각하며 남자친구와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소개팅의 경우 여자가 먼저 "제가 낼게요"라고 말하면 남자들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

- 무조건 보호받으려는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화성(남) : 보호받고 싶어하는 심리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평소 여자라는 이유로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다가 막상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는 페미니즘이나 남녀평등 운운하는 여자들은 알았다.

- 무조건 눈에 띄는 방법으로 보호하려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금성(여) : 귀찮아! 그런 남자들이 오히려

다른 남자들에 비해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이 훨씬 강한 것 같다. 무조건 '여자인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 학내 성추행 대비책을 보며 느낀 점은.
= 화성(남) : K교수의 성추행은 참 한심한 일이다. 동아리나 학생회내 성추행사건 또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크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 금성(여) : K교수의 경우 복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좀 더 확실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동아리나 학생회 내에서 있었던 성추행사건에 대한 대비책의 내용은 그리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속한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 같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매체비평

라디오 편 - 외외쇼

“통렬하고 신랄한 풍자, 주류 속 무딘 갈날 되지않길”



사회·정치적 사건을 풍자하는 패러디 '외외쇼'.

통렬한 풍자는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그래서 '희극'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그러나 방송에서 희극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명한 코미디언들은 대부분 코믹연기보다는 쇼 프로그램의 사회에 더 열심이고, 그나마 KBS 2TV의 '개그콘서트' 정도가 코미디 프로그램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정통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정치 풍자를 맛보기란 쉽지 않다.

반면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꽤나 통렬한 풍자를 맛볼 수 있는데 그 중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인터넷 방송 팟캐스트 '음악텐트'의 '배칠수'라는 인물이다. 가수 배칠수를 패러디 한 배칠수는 '듣고 싶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그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거칠 것 없는' 그 풍자정신에 있다. 배칠수의 이런 유명세는 단박에 거대 방송사의 구미를 당겼다. SBS는 인터넷 방송 속의 배칠수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서 다양한 음성변조와 풍자가 조합된 '외외쇼'를 기획했다. 그것이 바로 '김학도 배칠수의 외외쇼'다.

'김학도 배칠수의 외외쇼'는 음성변조라면 일가견이 있다는 김학도와 배칠수라는 두 사람의 조합이 가장 큰 특징이다. 두 시간 동안 약 9가지의 코너를 진행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황승관 박사, 추곡해설가 신문선, 배칠수, 최양락, 문성근 등의 목소리를 흉내내 최근 문제가 불거지는 사회·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짧은 풍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쿨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라디오 방송 속의 배칠수는 약간 맥이 빠진 듯한 느낌이다. 사실 '외외쇼'와 같은 라디오 쇼의 구성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높은 청취율을 자랑하며 10여 년 이상 방송해 온 MBC FM의 '감성 김혜영의 싱글빙글쇼'가 있으며 '김홍국 정성희의 특급작전'이나 '이택림 노사연의 즐거운 오후2시' 등도 비슷한 형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특히 '싱글빙글쇼'의 경우 오랜 방송활동 때 문이라는 모르겠으나 안정적인 '치고 빠지기'를 구현하며 라디오를 통한 정치풍자에 독특한 재미를 선보이고 있다.

배칠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터넷에서 좀 황무지 한 풍자정신이 방송이라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접하면서 약간의 풍자를 섞은 패러디 연기 정도로 한계를 보이는 인상이다. 그렇다보니 풍자와 신랄함은 '싱글빙글쇼'보다 못하다. 또 내용에서도 두 주인공이 유명세를 얻었던 '되찾아야 할 우리의 소리' '문학도의 그곳이 있다'와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 연기를 라디오를 통해 다시 선보인다는 점에서도 배칠수의 재능을 더 살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를 통한 다양한 정치풍자 코미디는 계속 이어져야 하고 필요하다. 유명한 목소리를 흉내내서 새로운 상황과 재미를 유발하는 것은 라디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다. 그러나 문제는 각 프로그램 별로 얼마나 다양하고 신랄한 풍자정신을 살릴 것인가에 있다. 배칠수의 재기 발랄함이 라디오에서도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이지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간사

메아리

우왕좌왕

▲화색 트렌치 코트를 즐겨 입는 '컴퓨터 행사 가제트'는 언제나 큰 눈동자를 굴리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한다. 하지만 항상 문제의 해결점은 찾지 못하고 헛다리만 짚기 일쑤이다. 이들은 컴퓨터 행사지만 치밀하거나 완벽한 구석이라곤 찾을 수 없다.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가 지난 1일부터 드라마 등급제를 실시했다. 예전해 영화, 뮤지컬, 수입드라마, 애니메이션

선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프로그램 등급제를 국내드라마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방송사는 모든 드라마를 5등급으로 나누어 방송 10분마다 화면에 등급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 날 만들어 그 날 밤영하는' 우리네 드라마 제작현황 등급제의 확대 실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등급을 가릴만한 이렇다 할 기준이 없는 실정에서 더더군다나 말이다.

▲이에 방송위는 방송사가 등급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오는 11월부터 발급비용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그 때까지 드라마 등급제에 적용을 하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시청률에 따라 드라마의 수명이 결정되는 우리 제작현황에서 6개월 혹은 1년 후의 드라마를 기획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바쁘게 돌아가는 방송 시스템 안에서 트렌드를 포착해 드라마로 기획할 작가가 연출가가 과연 몇이나 될

까. 또 혹여 시청률 하락으로 방영되던 드라마가 조기 종영한다면 그 뎀 어떤가.
▲드라마 등급제는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방송위는 등급제를 무리하게 시행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TV가 왜 유해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드라마 제작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이나 그 해결방법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실행초기

맞고 있는 드라마 등급제. 아마도 컴퓨터 행사 가제트가 실상은 컴퓨터와 별 상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드라마 등급제도 제 역할을 하기보다는 우왕좌왕 자기 발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위도 그다 방송과는 긴밀한 관련을 가진 단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란의 생각일까.
이성희 문화부장
mong2@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목정배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붓과 먹, 그리고 동국

58학번으로 입학할 때는 황건문(皇健門)으로 어깨를 높여주고 출입하였다. 그 황건문은 사찰의 일주문처럼 웅장히 버티고 있었으므로 드나드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깊이 듣게 되었다. 아! 그것은 동약의 기질일 것이고 불교적 기질일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는 아래쪽으로 들켜단이 경사져 있고 옆으로는 학생회관이 건축되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그 옛스러움과 학문적 정신이 녹아나는 곳에 위치하여 있어 누구든지 이 곳에 오면 남산골 딸깍발이 가 되는 듯 자못 선물이 배어났다. 이 모두가 지덕의 탓이라 할 수 있다.

목석에 자리한 우리 대학은 필동(筆洞)·묵정(墨井)·장충(張忠)의 동명으로 아로새겨 주니 정말 학문하여 나라에 충정을 받치는 곳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필동은 바로 붓물이다. 붓방아를 마음대

로 짙는 곳이다. 시를 쓰던, 소설·논설을 주창하던 붓이 사는 곳이다. 붓은 칼보다 더 강하다고 하지 않나. 또한 붓에는 좋은 먹이 있어야 한다. 먹이 솟구치는 목정동, 사나이로 태어나서 다섯 수레의 책만 읽을 건가. 다섯 수레 열 수레의 저술을 한다며 그 많은 먹물이 필요할 것인데 우리 학교앞이 목정동이니 먹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감직하고 울퉁은 붓으로 흑감색 먹물로 사나이의 기백을 늘렸었으니 이제 어디에 끌려가도 아가음이 있으리라.

우리 만해가 여기서 항거하였고, 퇴경·포공이 종지를 내세웠고, 무예·미당이 필설하던 동국의 광장. 정말 힘있고 피눈은 남산바람이 아니었던가.

이 모든 것이 저 누더단 황건문으로 청년의 열기가 왕래하였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고 회고된다.

2002년이 되었다. 나는 44년 동안 이 대학의 정문, 해학문, 후문을 드나들며 감회가 깊다. 황건문이 있던 그 곳은 후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세상이 되고 보니 그 의기풍창도 많이 줄었다. 나이 탓인가 하고 반문하여 보아도 나이에만 있는 것 같지 않다. 이것은 불성개발의 마음이 약해진 것인가. 아니 불성이 있는 것조차 방기하였는지.

그 포효하던 코끼리도 어느 모퉁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두가 무상으로만 돌리고 말 것인가.

대학은 기가 충천하여야 한다. 남산의 바람이 사방으로 관통하게 하여야 한다. 학교 중앙엔 연지도 있어야 한다. 금강식도 중요하지만 물방울의 부드러움도 있어야 한다. 그레아만 붓을 들고 먹물 크게 찍어 동국을 살리는 충정이 나올 것이다.

금강산을 다녀와서

통일에 대한 믿음으로 나를 들뜨게 했던 여행

출발

4월 10일. 금강산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속초로 출발하는 내 손에 들린 두 개의 가방 속에는 옷들로 가득했다. 그곳의 기후가 어떻게 고민을 해왔지만 예상하는 힘들어 결국 반바지부터 겨울철 때까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옷을 잔뜩 챙겼다.

2년이 넘는 시간을 북한의 사상과 체제, 사회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만, 막상 처음 가보는 북녘 땅은 그렇게 내게 현실적인 무지(無知)로 다가왔다.

도착

속초에서 출항한지 약 네 시간 후, 우리는 북극의 고성항에 도착했다. 항구에 처음 발을 내딛자 뭐라 말하기 힘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로 인해 울컥거림에 약간의 구토기까지... 순간 순간 긴장과 설렘이 어지러울 정도로 교차했다. 드디어 온 거다. 그래, 드디어...

운정리, 운정리 사람들

속초는 고성항의 해금강 호텔이었지만, 우리가 만나질 이상 머문 곳은 휴게소가 있는 외금강 어귀. '운정리'라는 농촌 마을이었다. 따뜻한 온(溫)에, 우물정(井). 운정이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란 다. 그러나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우리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표정은 이곳이 운정(溫井)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북한에 왔다는 들은 기분에 손 흔드는 우리에게 살짝 웃어주는 분들과 우리에게 농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정겨운 모습에서 '왜 통일을 못하냐?' 하는 생각이 든 것은,

아마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것이다.

만물상과 리철수 동무

만물상을 오르며 친구를 한 명 사귀었다. 우연히 나랑 나이가 같은, 약간 동그란 얼굴에 빨간 볼연지가 고운 한 여성 안내원을 만난 것이다.

"혜숙이? 난 철수인데... 이름도 비슷하네. 우리 동무해야겠구나."

내가 당황할 만치 허물없이 다가온 그녀는 안내원 일이 좋아 "결혼은 3년은 더 있다가 하고 싶다"며 수줍게 이야기하는 애교 많은 친구였다. 그녀의 솔직함과 순수함에 탄탄 나는, 한참을 떨어져 지내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 마냥 조잘 조잘 수다를 많이도 떨었다.

하지만 산 아래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낮아져 갔다. 우리가 돌아가면 이 산만 내려가면 평생 서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게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손을 꼭꼭 잡고 산을 내려왔지만, 결국 우리가 주고받은 것은 주소도, 전화번호도 없는 그저 하얀 종이에 적은 서로의 이름 석자뿐이었다.

마지막 밤

열한시 즈음 두터운 접פר를 하나 꺼내고 호텔 앞을 조금 걸었다.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 파도소리를 빼고라도 금강의 밤은 환히 켜진 불빛들로 한밤중까지 하늘이 희뿌연 남한과는 달리 고요하고 아주 캄캄한 밤이었다. 호텔 앞 초소의 불빛에 언뜻 아트막한 산자락이 보였다. 저 너머에 있는 운정리의 작은 집들은 낮

에 비웠던 일 나가시던 어르신들과 책보(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불렀는데, 그 아이들은 뭐라고 부르지는 모르겠다.)를 메고 등고하던 작은 아이들과 조금 말라있어 다소 애처롭게 보이던 소와 흰 염소들이 조용조용 자고 있었다. 딱딱한 표정으로 버스 안의 우리들을 지켜보던 어린 병사들도 그렇게 자고 있었지. 바로 저기, 나와 같은 하늘 아래서... 그 날, 고성항의 캄캄했던 밤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조국은 하나다'

내가 가서 본 금강산에는, 그곳에 바로 통일의 이유가 있었다. 단순히 북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다. 그것은 일그러져 있는 우리 삶의 복원이었다.

버스 창을 사이에 두고 손을 흔들 수밖에 없는, 친구에게 아무런 편지를 써도 전해줄 이가 없는, 50년을 헤어져서 산 어머니와 자식이 삼일동안 만나고 또 다시 기약없는 헤어짐을 가져야 하는, 이어없는 현실.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

'통일이 되면 빼앗긴 채 잊고 살던 동무처럼 좋은 말도 다시 국어 책에 올려 놓고, 만주방관 말달리던 배달의 힘찬 노래 다시 하늘에 닿겠네~' 하는 그 노래처럼 말이다.

금강산은 그렇게 통일에 대한 믿음으로 나를 들뜨게 했다. 이제 조국은 하나여야 하고, 더 이상 통일은 우리의 소망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래, 왜 우리가 통일을 못해?'

윤해숙 (사과대 북한3)

국어교육과 백일장 장원 작품

만남 - 아버지의 달력

누군가 '시간은 존재의 형식'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보이지 않는 존재의 형식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상 해 놓은 것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이고, 집집마다 벽에 하나씩 걸어두는 것이 달력이다.

달력의 쓰임새는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다. 공통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개개의 사람들에게는 생일이나 기념일, 그리고 특별한 날을 기록해 두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나의 일기장에 매일 마지막 날에 그 다음 달의 중요한 일정과 기성시간, 특별한 사건을 표시해주는 달력을 그리다. 그리고 꼭 표시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술을 마신 날에는 '마시다'라는 영어의 동사 'drink'의 첫 자 'd'를 따와서 표시하는 것이다. 일기장에 표시되는 'd'의 개수에 따라서 그 달의 생활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전 일기장을 훑어보다가 화들짝 놀란 적이 있다. 왜냐하면 일기장 3월 달력에 표시된 'd'의 개수가 무려 23개나 되었던 것이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학교에 나온 날을 25일로 친다고 하면 학교에 나온 날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신 것이 아닌가 ...

그래서 3월의 마지막 날에는 뼈저리게 반성을 하며 4월에는 술을 적당히 마시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4월의 달

력을 만들었지만 그 4월의 달력에도 'd'의 개수는 벌써 15개를 넘어 20개를 향하여 힘차게(?) 달리고 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달력이 하나 있으시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아버지는 평생을 당신의 피나는 노동으로만 뚝뚝 삼 형제를 키우고 가르치셨다. 올해 나이 여든세 환갑에 이르신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이른 새벽부터 고된 노동의 현장으로 나가신다. 이 뚝뚝 막내아들의 등록금을 내주시기 위하여 ...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시면 잊지 않고 시고 달력에 'o'를 표시하신다. 당신의 고된 하루의 노동이, 말로는 다 표현 못하는 힘겨운 노동이 달력에 'o' 하나로 표시되는 것이다.

오늘도 나의 달력에는 'd' 표시가, 아버지 달력에는 'o'가 표시될 것이다.

이세주 (사범대 국교3)

동대신문사는 여러분의 특목 뛰는 참신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대신문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학내외 주요 사건에 대한 주장, 시나 수필, 책, 영화, 그리고 난 후의 감상문 등을 200자 원고지 4매 분량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서울 ☎ : 2260-3491 • 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너무도 사랑하는 부모님께!

"우리 딸, 대학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거라"라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입학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엄마·아빠 딸이 2학년이 되었어요. 이렇게 제가 아무런 문제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지극 정성 때문이지요.

아빠, 엄마...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내심 장학금 기대하셨던 아빠께 실망만 안겨 드렸지만,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비싼 등록금을 내주시곤 했지요. 매주 답연하라는 듯 용돈을 받는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제가 타지에서 혼자 학교 다니다고 걱정 많으시죠?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면 딸을 공주처럼 대해 주시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이 계시기에 타지에서든 외롭지 않게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아빠, 기억하세요? 딱 1년 전 이맘때쯤 "내 딸 언정아, 보거라"하시며 처음으로 보내 주셨던 메일... 항상 아빠라는 자리를 멀게만 느꼈던 저였는데 딸이지요. 이전 아빠가 제겐 툭도 없는 친구처럼 느껴져요. 성인이라는 나이보다는 딸이라는 이름으로 연정이 저를 믿는다고 하셨던 이 빠니까요.

앞으로 엄마, 아빠의 소중한 분신으로서 항상 착하고 예쁜 딸이 될게요. 두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한 모습 지냈으면 해요. 멀리 경주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스런 딸 언정이가 보내요.

차연정 (인문대 중문2)

뚝배기 근성을 보여줘야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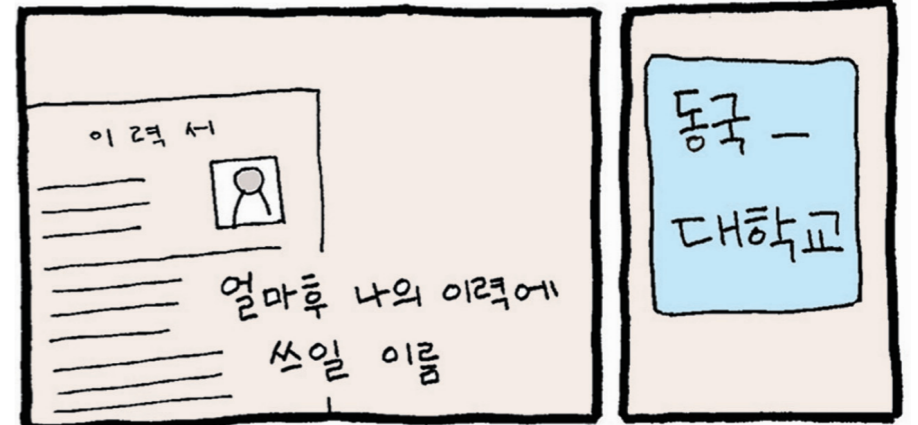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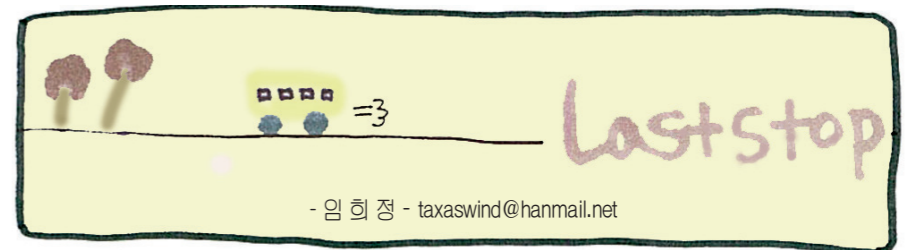
김동성과 오노의 속 터지는 경기가 있는 후 약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우리들의 기억에서 벌써 잊혀지는 건가? 오노에게 아니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밀려 금메달을 땀길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이란 이름 같았다. 그리고 그 분함은 미국 상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미국 상품 불매운동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우리들도 미국의 거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일이라야 생각한다. 나 역시 이에 동참하는 바이다.

하지만 내가 거리에서 본 우리의 모습은 나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 가득한 맥도날드 햄버거와 손에 들린 코카콜라. 그리고 미국 상표의 옷들이었다.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아마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금메달에 목숨 걸며 오노를 비난하고 미국을 욕하던 사람들이 거리에서 손에 햄버거와 콜라를 들고 미국 상품 못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냄비근성'이라 비웃으며 우리의 높아진 반미감정을 봐도 그다지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돌아서면 있어버리는 단세포 민족에게 뭐가 겁이 나겠는가? 우리가 불매 운동한다고 해도 '잠시 그러다 말겠지' 하고 얄짍아 볼 것이 아닌가?

우리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한국인은 금방 풀이 올랐다가 식어버리는 냄비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통의 '뚝배기 근성'을 보여줌으로써, 김동성의 잃어버린 금메달을 찾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단합된 힘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정유진 (문과대2)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비판정신 담은 신문으로

지난호에 특히 눈에 들어왔던 것은 특집 면에 '대학신문을 말한다' 라는 기사였다. 신문을 발행하기만 하면 학생들이 봐 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닌 대학의 다변화와 다양화에 따른 신문 또한 학생들과 함께 숨쉬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고민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대답에서도 지적했듯이 대학신문이 과거와는 다른 뉘앙스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대중적인 신문과는 달리 대학신문은 대학과 사회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내출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흥미나 재미위주의 주제만을 다루며 자칫 가볍기만 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안에서 신문사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있나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백지 대치보, 설문조사 등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진짜 피부로 느끼는 것들에 대해 정말 솔직한 생각들이 신문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노력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순 보도 식의 신문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비판정신을 내포할 수 있는 동대신문이 된다면 100주년 200주년에도 동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대인의 자랑으로 남아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선영 (아간경좌 경영3)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나는 평소 문화면에서 사이트를 소개해 주는 칼럼을 좋아한다. 잡지나 다른 매체에서도 가끔씩 사이트를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동대신문에 소개된 사이트는 그런 곳에 나오는 것과는 달리 재미와 유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신문을 보고 들어갈 때마다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감탄사가 연신 터져 나온다. 특히 그 전에 소개된 '넌네'나 '정글'은 컴퓨터의 즐거움에 저장해 놓을 만큼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가 되었다. 지난호에 소개

된 '이매진'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진짜에 왜 이런 사이트를 알지 못했나 내 자신이 책망스러울 정도였다. 문화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들도 다양하게 다루어졌다는 사이트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신문에서 어떠한 사안을 기사로 잘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안 자체도 참신하고 비중이 큰 것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면의 사이트 칼럼은 독자들에게 아주 환영받고 있는 칼럼인 듯 하다. 앞으로 좋은 사이트의 끊임없는 발굴을 통해 장수하는 칼럼이 되었으면 한다.

김정희 (인문대 일문3)